

포럼

23-03

제51회 청소년정책포럼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2023. **8.24**(목) 13:00~17:20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후원  교육부

제51회 청소년정책포럼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지원방안

프로그램

시간	내용	
	사회 홍명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3:00~13:30	등록	
13:30~13:50	개회 및 축사	개회사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이자스민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13:50~14:50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 연구결과	발표 1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 I: 학교적응 발표자 임선아 (전북대학교 교수)
		발표 2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 II: 진로진학 발표자 김지혜 (서강대학교 교수)
14:50~15:20	종합토론	토론 1 토론자 박용한 (충남대학교 교수) 토론 2 토론자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15:20~15:30	휴식시간	
15:30~16:30	정책사례 및 발전방안	발표 1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발표자 안진심 (연수중학교 교사)
		발표 2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발표자 정종운 (구로구가족센터 센터장)
16:30~17:10	종합토론 및 전체토론	좌장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1 토론자 한경은 (군서미래국제학교 교감) 토론 2 토론자 김수영 ((사)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17:10~17:20	폐회사	

■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 연구결과

-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 I : 학교적응 3
발표자: 임선아 (전북대학교 교수)
-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 II : 진로진학 33
발표자: 김지혜 (서강대학교 교수)

■ 종합토론

- 토론자: 박용한 (충남대학교 교수) 51
- 토론자: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55

■ 정책사례 및 발전방안

-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61
발표자: 안진심 (연수중학교 교사)
-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77
발표자: 정종운 (구로구가족센터 센터장)

■ 종합토론 및 전체토론

- 토론자: 한경은 (군서미래국제학교 교감) 95
- 토론자: 김수영 ((사)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99

제51회 청소년정책포럼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 연구결과

-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는 최종 분석결과가 아니므로 인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는 「20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며, 해당 보고서는 2024년 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 I: 학교적응

- 임선아(전북대학교 교수)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 I : 학교적응

발표자: 임선아(전북대학교 교수)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 초·중등학교의 다문화 학생이 급증함에 따라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육부가 2022년 발표한 교육기본통계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초·중등(각종 학교 포함)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은 2012년 조사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에는 총 168,645명에 달해 전년 대비 8,587명(5.4%)이 증가하여 전체 학생의 3.2%(전년 대비 0.2%p 상승)를 차지했다. 그 중 국제결혼가정의 다문화 학생이 전체의 74.7%로 가장 많은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2).

다문화 학생 비율은 향후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다문화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 출생아 비율은 5.5%(14,322명)에 육박하며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수년 내에 유럽, 캐나다, 미국과 같은 다민족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2009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후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학업 중단 등 부적응 문제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희찬, 2023; 배옥현, 2018; 최지원, 한운선,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및 학업 중단 등의 문제는 학교적응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나타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학교적응이라는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있는 경우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비행 및 학업 중단 등으로 인해 성인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게되며, 결과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Wirt et al., 1998). 사회적으로는 비행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며,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McDougall & Vaillancourt, 2015; Wallinius et al., 2016). 학교적응이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일반 가정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돕기 위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성별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적 요인, 또래·교사 등과의 사회적 관계, 부모의 양육, 가족생활 분위기, 지역사회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정은과 조미형(2007)의 연구에 따르면 공통적으로는 또래와의 관계가 원활하고, 교사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상호 지지적일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신뢰감이 있을수록 학교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석(2004)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적응에 사회적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배경이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희훈, 오성배, 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등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어서(금명자 외, 2006)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구축되어 있지 않을 때 학교적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주, 2012).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 문화적 특성, 사회자본 등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밝히려는 여러 연구적 시도들이 있었으나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의 발달적 양상을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학교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는 구인이므로 종단적 방법

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종단적 방법을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교적응의 발달적 변화를 파악해 보고자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을 사용하여 다문화학생들의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양상에서 이질적인 잠재계층이 존재하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다문화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따라 종단적 발달양상이 나타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발달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파악하는 것을 통해 장기적으로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코호트 1차(초4)-4차(중1)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다문화학생들의 발달적 양상에 대한 잠재집단을 분류해보고, 이들 잠재집단 구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잠재집단에 대한 영향과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개년에 걸친 종단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019년 기준 분석에 사용된 대상은 2245명(남학생 1145명, 여학생 1100명)이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학교생활의 발달 양상에 따라 잠재계층을 도출해보고, 이러한 학교생활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도출된 잠

재계층이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의 영향과 영향력을 시점별로 검증하고, 학교생활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계층이 최종 시점(중학교 1학년)의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잠재계층을 분류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을 4차년도에 걸쳐 모두 4문항씩을 사용하였다. 이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표 1〉 참조).

〈표 1〉 학교생활 구인 측정도구

변수	문항 내용	값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학교 생활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나는 우리학교 친구들이 좋다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4	.755	.756	.784	.769

학교생활의 발달양상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다음의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먼저, 다문화청소년의 가구유형(국제결혼 가정, 중도입국 가정, 외국인 가정), 성별, 차별피해경험 유무,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 어머니의 학력,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정형편, 주관적인 성적 수준, 문화적응 스트레스, 스트레스(4차시에는 스트레스 척도 문항 대신 우울 척도 문항으로 대체됨), 자아존중감, 부모님과 대화 빈도,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다문화청소년이 희망하는 교육수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다. 이 중 다문화청소년의 가구유형(국제결혼 가정, 중도입국 가정, 외국인 가정)은 더미변수 처리하였고, 성별은 남자를 '1', 차별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학교 내와 밖에 다문화청소년을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하는 경우에 '1'로 처리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중졸 이하면 '1'부터 대학원 졸업은 '5'까지 5점 척도의 연속값으로 처리하여 값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정형편은 아주 어렵다 '1'부터 아주 잘 산다 '5'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은 것으로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인 성적 수준도 같은

방식으로 5점 척도(매우 못 한다 '1점'부터 매우 잘한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학교성적이 좋은 편이라고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총 9문항,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로 총점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스트레스(4차시에는 스트레스 척도 문항 대신 우울 척도 문항으로 대체됨) 문항은 2문항, 4점 척도(전혀 그런 적이 없다 '1점'부터 자주 경험했다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은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님과의 대화 빈도는 1차시에는 4문항, 2차~4차시에는 총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거의 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일 한다 '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대화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지지 6문항, 친구지지 3문항, 교사지지 3문항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부모, 친구, 교사의 지지가 높다고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청소년이 희망하는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1'부터 대학원이상 '5'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 희망하는 교육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6문항으로, 4점 척도(한번도 없었다 '1점'부터 거의 매일 있었다 '4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집단적 괴롭힘 피해 경험이 많았음을 의미한다(사용 변수의 구체적인 문항내용과 값 및 신뢰도 값은 [부록1]을 참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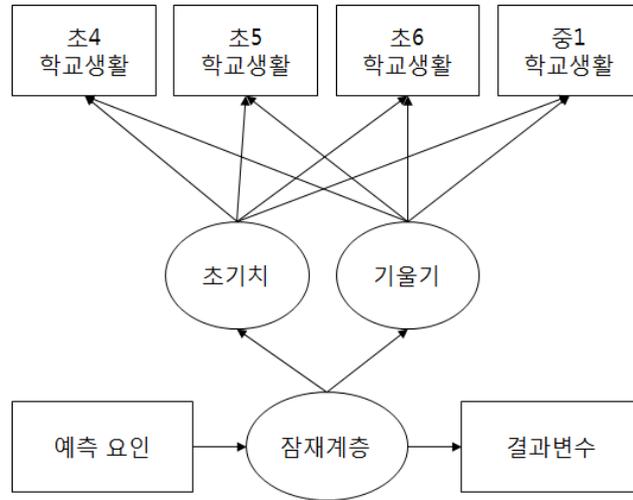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학교생활의 종단적 변화에 따라 분류된 잠재계층이 최종 시점(중학교 1학년)의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4차 시점에서 성적에 대한 만족도, 삶만족도, 비행 척도를 사용하였다. 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4점'의 4점 척도로 구성된 1개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삶만족도는 3개 문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삶에 대하여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비행은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척도(전혀 없다 '1점'부터 1주일에 여러 번 '6점')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행동 빈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자세한 문항 내용과 값 및 신뢰도는 [부록1]을 참조 바람).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변화유형을 성장혼합모형(Growth Mixture Model: GMM; Muthén & Shedden, 1999)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종단자료 분석에 사용되며, 하나의 모집단 내에 관측되지 않은 이질성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잠재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초기치와 변화율의 측면에서 서로 이질적인 양상을 보이는 하위집단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etras & Masyn, 2010).

잠재계층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와 BIC(Baysian Information Criteria) 적합도 지수, Entropy지수, 그리고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하여 계층의 실제적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AIC와 BIC는 수치가 작을 수록 좋은 모형으로 간주되며, Entropy는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가 정확함을 나타낸다. BLRT는 k (대립가설)의 지지 여부($k-1$ (영가설)의 기각여부)를 결정하는 p 값을 제공한다. $p < .05$ 일 때 k 를 지지한다(Muthén & Muthén, 2000). 이를 위하여 Mplus8.7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성장혼합모형 분석을 통해 잠재계층을 분류한 후, 어떠한 예측 요인이 학교생활 변화 양상에 따른 각 잠재계층에 속할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에 따라 4차년도의 결과변수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 결과변수 별로 변량분석(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변량분석을 위해서는 SPSS 26을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잠재계층을 구분하는 요인인 학교생활과, 이 잠재계층 구분을 예측하는 예측 요인들의 초기 시점인 1차년도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생활은 중도입국가정 유형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p < .01$ 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의 상관관계 표는 [부록2]부터 [부록4]에 제시하였다.

〈표 2〉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052*	1																		
(3)	.001	-.493**	1																	
(4)	.059*	-.806**	-.117**	1																
(5)	-.082**	-.014	.030	-.005	1															
(6)	-.079**	-.005	-.002	.007	.021	1														
(7)	.073**	-.198**	.131**	.137**	.051*	.020	1													
(8)	.055**	-.072**	.026	.064**	.005	.013	.142**	1												
(9)	.322**	.029	-.022	-.018	.006	-.068**	.079**	.048*	1											
(10)	-.252**	-.077**	.032	.066**	.037	.276**	.028	-.035	-.192**	1										
(11)	-.194**	.077**	.011	-.095**	.057**	.207**	-.010	-.054**	-.058**	.208**	1									
(12)	.389**	-.075**	.026	.067**	-.013	-.110**	.041	.066**	.236**	-.269**	-.231**	1								
(13)	-.143**	.008	-.003	-.008	.087**	.321**	-.005	.003	-.078**	.229**	.377**	-.176**	1							
(14)	.191**	-.110**	.058**	.086**	-.017	-.012	.100**	.128**	.122**	-.013	-.089**	.180**	-.011	1						
(15)	.367**	-.121**	.017	.127**	-.032	-.093**	.054**	.121**	.206**	-.270**	-.204**	.480**	-.123**	.341**	1					
(16)	.457**	-.042*	.017	.037	-.081**	-.126**	.031	.051*	.254**	-.174**	-.209**	.397**	-.265**	.211**	.345**	1				
(17)	.524**	-.064**	.045*	.043*	-.069**	-.094**	.013	.020	.267**	-.185**	-.164**	.358**	-.117**	.199**	.359**	.435**	1			
(18)	.170**	-.132**	.043*	.122**	-.043*	-.024	.121**	.084**	.171**	-.052*	-.098**	.170**	-.068**	.174**	.186**	.125**	.136**	1		
(19)	.228**	-.026	.021	.015	-.084**	-.027	-.010	.043*	.114**	-.122**	-.079**	.184**	-.048*	.111**	.190**	.137**	.235**	.048*	1	
(20)	.174**	.026	-.030	-.009	-.061**	-.016	-.051*	.050*	.087**	-.067**	-.051*	.130**	-.037	.118**	.189**	.140**	.145**	.049*	.287**	1
M	12.879	.772	.067	.161	.510	.050	2.130	2.750	3.400	11.531	3.528	9.870	6.742	9.511	20.050	11.547	11.366	3.880	.840	.540
SD	2.024	.419	.250	.367	.500	.228	1.046	.698	.771	3.697	1.466	1.672	2.045	3.805	3.258	2.451	2.431	.651	.369	.499

주1. (1) 학교생활, (2) 국제결혼가정, (3) 중도입국가정, (4) 외국인가정, (5) 성별(남), (6) 차별경험, (7) 모학력, (8) 가정경제수준, (9) 학교성적, (10) 문화적응스트레스, (11) 스트레스, (12) 자존감, (13) 괴롭힘피해, (14) 부모대화, (15) 부모지지, (16) 친구지지, (17) 교사지지,

(18) 희망교육수준, (19) 학내도와주는어른, (20) 학밖도와주는어른;

주2. ** $p < .01$, * $p < .05$

학교생활과 최종 시점(4차년도 중학교 1학년)의 결과변수와의 상관관계는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학교생활은 성적만족도와 삶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수준). 반면 비행은 학교생활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수준).

<표 3> 학교생활과 결과변수간의 상관관계

	학교생활	성적 만족도	삶만족	비행
학교생활	1			
성적 만족도	.284**	1		
삶만족	.433**	.330**	1	
비행	-.073**	-.035	-.052*	1
평균	12.636	2.671	9.519	12.254
표준편차	1.868	0.693	1.726	1.597

주. ** $p < .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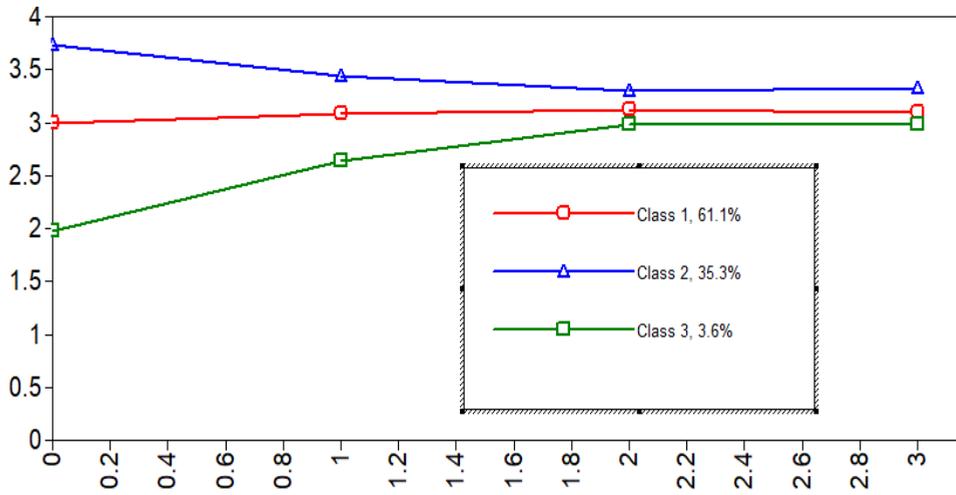
2. 학교생활 발달 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의 구분

잠재계층 수에 대한 결정을 위해 학교생활을 시간적 변화에 따라 1차항과 시점 변수를 제공한 가속도항(2차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속도항을 투입한 2차 함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2차 함수 성장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AIC, BIC, sABIC값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Entropy값은 3계층이 높았다. 반면, BLRT($p < .001$)는 모든 계층에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었다. 또한 3개의 잠재프로파일을 구성하는 비율이 적절하고, 집단별 사례수의 비율과 해석의 용이성 측면에서도 3개 집단이 잘 구분되어 잠재계층의 수가 3개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4〉 잠재계층 수에 따른 모형 적합 지수

분류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	3	4
정보지수	AIC	9649.502	8669.810	추정불가
	BIC	9769.548	8763.571	
	sABIC	9702.827	8709.563	
χ^2 검증	LMR LRT	175.628(0.0409)	78.505(0.0000)	
	BLRT	0.0000	0.0000	
분류의 질	Entropy	0.812	0.972	
분류율(%)	1 계층(%)	0.01744	0.61061	
	2 계층(%)	0.98256	0.35313	
	3 계층(%)		0.03627	

최종적으로 선정된 3개의 잠재계층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계층 1은 61.1%인 1,150명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며 1차년도 시점에 중간값에서 시작하여 소폭 증가하다가 4차년도에 소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거나 이러한 변화가 크지 않은 특징을 보였다(T1: 2.992, T2: 3.089, T3: 3.122, T4: 3.091). 따라서 이 계층을 '중간 유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2는 전체의 35.3%인 657명의 사례수를 가지며 1차년도 시점에서 가장 높은 학교적응력을 보이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1: 3.73, T2: 3.440, T3: 3.302, T4: 3.316). 따라서 이 계층을 '높은 적응력을 보인다 감소하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계층 3은 전체의 3.6%인 63명으로 가장 작은 사례수를 가지며, 1차년도 시점에서 매우 낮은 학교적응력을 보이고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1: 1.972, T2: 2.642, T3: 2.976, T4: 2.974). 따라서 이 계층을 '낮은 적응력을 보인다 증가하는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발달적 변화양상

3.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

학교생활의 발달양상에 따라 확인된 3개의 잠재계층을 구분하는데 있어 언제(시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측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시점별(1차, 2차, 3차, 4차) 각 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한 후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을 비교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표 4>에 제시된 추정치는 준거집단에 비해 각 계층에 속할 확률을 의미한다.

〈표 5〉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의 예측요인

변인	초등4(1차년도)			초등5(2차년도)			초등6(3차년도)			중1(4차년도)		
	<i>B</i>	<i>se</i>	<i>OR</i>	<i>B</i>	<i>se</i>	<i>OR</i>	<i>B</i>	<i>se</i>	<i>OR</i>	<i>B</i>	<i>se</i>	<i>OR</i>
모학력	0.110*	0.052	1.117	0.089*	0.048	1.093	0.067	0.110	1.069	0.062	0.114	1.064
가정경제수준	-0.081	0.078	0.922	0.065	0.074	1.067	0.185	0.208	1.203	-0.301	0.226	0.740
학교성적	0.379***	0.075	1.460	0.230**	0.073	1.258	-0.012	0.174	0.988	0.434*	0.197	1.544
문화적응스트레스	-0.103***	0.020	0.902	-0.129***	0.021	0.879	-0.097*	0.039	0.908	-0.117**	0.039	0.890
스트레스(우울)	-0.004	0.041	0.996	0.072	0.038	1.074	0.146	0.095	1.157	0.004	0.060	1.004
자존감	0.138**	0.040	1.148	0.054	0.037	1.055	0.048	0.101	1.049	-0.085	0.100	0.919
괴롭힘피해	0.031	0.033	1.032	-0.029	0.050	0.971	-5.457	6.149	0.004	-0.217	1.041	0.805
부모대화	0.010	0.015	1.010	0.010	0.023	1.010	0.050	0.060	1.052	-0.058	0.064	0.943
부모지지	0.047*	0.021	1.048	0.055**	0.020	1.056	0.009	0.056	1.009	0.113*	0.056	1.120
친구지지	0.171***	0.027	1.187	0.058*	0.029	1.060	0.126*	0.072	1.135	0.052	0.083	1.053
교사지지	0.294***	0.028	1.341	0.095**	0.029	1.099	0.039	0.066	1.039	0.145*	0.070	1.155
희망교육수준	0.090	0.091	1.094	-0.119	0.082	0.888	0.163	0.227	1.177	0.345	0.257	1.412
가구유형국제결혼	-0.220	0.149	0.802	-0.412*	0.139	0.662	-0.232	0.159	0.772	-0.324	0.144	0.832
가구유형종도입국	-0.421	0.241	0.657	-0.441*	0.228	0.644	-0.416	0.262	0.659	-0.203	0.267	0.817
성별=남	-0.102	0.106	0.903	-0.139	0.101	0.870	-0.420	0.252	0.657	-0.449	0.271	0.638
차별경험	0.247	0.274	1.280	0.138	0.396	1.471	0.132	0.333	1.321	0.190	0.924	1.209
학내도와주는어른	0.401*	0.176	1.494	0.253	0.160	1.288	1.134*	0.481	3.109	-0.441	0.504	0.643
학밖도와주는어른	0.210*	0.11	1.233	0.037	0.103	1.038	-0.207	0.271	0.813	0.124	0.290	1.132

1 VS 2
(준거1)

변인	초등4(1차년도)			초등5(2차년도)			초등6(3차년도)			중1(4차년도)		
	<i>B</i>	<i>se</i>	<i>OR</i>	<i>B</i>	<i>se</i>	<i>OR</i>	<i>B</i>	<i>se</i>	<i>OR</i>	<i>B</i>	<i>se</i>	<i>OR</i>
모학력	-0.127	0.131	0.881	-0.148	0.137	0.862	-1.389*	0.65	0.249	-1.832*	0.962	0.160
가정경제수준	0.062	0.168	1.064	0.098	0.180	1.103	1.140	0.885	3.127	0.178	0.892	1.194
학교성적	-0.510**	0.172	0.600	-0.267	0.173	0.765	0.207	0.694	1.23	0.984	0.747	2.675
문화적응스트레스	0.018	0.031	1.018	0.021	0.033	1.021	-0.011	0.095	0.989	-0.139	0.154	0.870
스트레스(우울)	0.207*	0.085	1.230	0.208**	0.081	1.231	0.251	0.322	1.285	-0.284	0.278	0.753
자존감	-0.049	0.079	0.953	-0.119	0.086	0.888	-0.211	0.347	0.809	-0.244	0.346	0.783
괴롭힘피해	-0.027	0.048	0.973	0.043	0.074	1.044						
부모대화	-0.003	0.038	0.997	0.005	0.061	1.005	0.315	0.24	1.370	-0.392	0.274	0.676
부모지지	0.034	0.042	1.034	0.044	0.046	1.045	-0.511*	0.23	0.600	0.674*	0.268	1.962
친구지지	-0.191***	0.054	0.826	-0.083	0.064	0.921	0.100	0.262	1.105	-0.412	0.355	0.662
교사지지	-0.319***	0.056	0.727	-0.092	0.073	0.912	0.038	0.271	1.039	-0.01	0.252	0.990
희망교육수준	-0.141	0.16	0.869	-0.303*	0.170	0.739	0.054	0.744	1.056	-1.893	1.313	0.151
가구유형국제결혼	0.074	0.385	1.077	0.448	0.424	1.565	0.067	0.566	1.234	0.072	0.334	1.222
가구유형중도입국	-0.436	0.704	0.647	-0.567	0.83	0.567	-1.086	0.957	0.338	0.083	1.129	1.087
성별=남	0.061	0.251	1.063	0.123	0.258	1.131	-0.498	0.835	0.608	-1.373	1.109	0.253
차별경험	0.213	0.420	1.237	-1.361	1.089	0.256						
학내도와주는어른	-0.135	0.286	0.874	-0.482	0.296	0.618	1.578	1.357	2.846	1.924	1.332	2.456
학밖도와주는어른	0.027	0.271	1.028	-0.043	0.270	0.958	-0.413	0.886	0.661	-2.363*	1.24	0.094

1 VS 3
(준거1)

변인	초등4(1차년도)			초등5(2차년도)			초등6(3차년도)			중1(4차년도)		
	<i>B</i>	<i>se</i>	<i>OR</i>	<i>B</i>	<i>se</i>	<i>OR</i>	<i>B</i>	<i>se</i>	<i>OR</i>	<i>B</i>	<i>se</i>	<i>OR</i>
모학력	0.238*	0.139	1.268	0.237*	0.141	1.267	1.455*	0.652	4.285	1.893*	0.963	6.642
가정경제수준	-0.144	0.182	0.866	-0.033	0.187	0.968	-0.955	0.89	0.385	-0.478	0.89	0.620
학교성적	0.889***	0.185	2.432	0.497**	0.181	1.644	-0.219	0.697	0.803	-0.55	0.748	0.577
문화적응스트레스	-0.121**	0.036	0.886	-0.150***	0.037	0.861	-0.086	0.098	0.918	0.023	0.155	1.023
스트레스(우울)	-0.211*	0.093	0.810	-0.136	0.085	0.873	-0.105	0.326	0.900	0.288	0.278	1.334
자존감	0.187*	0.087	1.205	0.172*	0.089	1.188	0.259	0.349	1.296	0.159	0.346	1.172
괴롭힘피해	0.059	0.057	1.061	-0.072	0.084	0.931						
부모대화	0.013	0.04	1.013	0.005	0.063	1.005	-0.264	0.242	0.768	0.334	0.273	1.396
부모지지	0.013	0.046	1.013	0.011	0.048	1.011	0.520*	0.233	1.683	-0.561*	0.267	0.571
친구지지	0.362***	0.059	1.436	0.141*	0.068	1.151	0.026	0.265	1.027	0.464	0.356	1.591
교사지지	0.613***	0.061	1.846	0.187*	0.075	1.205	0.000	0.273	1.000	0.155	0.252	1.167
희망교육수준	0.231	0.18	1.260	0.184	0.179	1.203	0.109	0.758	1.115	2.238*	1.321	9.376
가구유형국제결혼	-0.294	0.406	0.745	-0.860*	0.433	0.423						
가구유형중도입국	0.015	0.735	1.016	0.127	0.846	1.135	0.670	0.969	1.954	-0.286	1.134	0.751
성별=남	-0.163	0.268	0.850	-0.262	0.267	0.769	0.079	0.845	1.082	0.924	1.109	2.520
차별경험	0.034	0.488	1.034	1.223	1.138	3.397						
학내도와주는어른	0.537	0.329	1.710	0.735*	0.320	2.085	-0.444	1.399	0.642	1.365	1.234	0.003
학밖도와주는어른	0.183	0.287	1.200	0.080	0.278	1.083	0.206	0.895	1.229	2.487*	1.241	12.025

- 주1. 집단 1: 중간 유지 집단, 집단 2: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 집단 3: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
주2. 가구유형 준거: 외국인 가정; 4차 시점에서 스트레스 대신 우울 사용
주3. * $p < .05$; ** $p < .01$; *** $p < .001$

각 시점에 따른 잠재계층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배 높았으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4배 높았다. 또한 자존감이 높을수록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배 높았다. 반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 경우에는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보다 중간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0.9배 높았다.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1배, 1.2배, 1.3배 높았다. 또한 학교 내와 학교 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5배, 1.2배 높았다.

초등학교 5학년 때도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배 높았으며,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3배 높았다. 반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 경우에는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보다 중간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0.9배 높았다.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모두 1.1배 높았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 경우에는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보다 중간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0.9배 높았으며, 친구지지가 높을수록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1배 높았다. 또한 학교 내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3.1배 높았다.

중학교 1학년 때는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1.5배 높은 반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 경우에는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보다 중간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0.9배 높았다. 부모지지와 교사지지가 높을수록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각각 1.1배, 1.2배 높았다.

4. 잠재계층 분류에 따른 결과변수의 차이

각 잠재집단별 결과변수(성적 만족도, 삶 만족도, 비행, 학업중단위험 생활 및 태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성적 만족도 평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집단 2(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의 성적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집단 3) - 중간 유지 집단(집단 1)의 순서로 평균이 높았다. 각 집단별 성적 만족도 차이검증 결과, 집단 2(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가 중간 유지 집단(집단 1)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01$). 삶만족도의 평균을 비교했을 때, 집단 2(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집단 1(중간 유지 집단), 집단 3(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의 순서로 삶만족도의 평균이 높았다. 각 집단별 삶만족도 차이검증 결과, 집단 2(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와 중간 유지 집단(집단 1)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p < .001$), 집단 2(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와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집단 3)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 < .01$). 비행은 잠재집단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변량분석 결과

		<i>N</i>	<i>M</i>	<i>SD</i>	<i>F</i>	<i>Scheffe</i>
성적 만족도	집단1	1150	2.620	0.684	8.740***	1<2***
	집단2	657	2.760	0.698		
	집단3	63	2.670	0.718		
삶 만족도	집단1	1150	9.381	1.703	14.634***	1<2*** 2>3**
	집단2	657	9.802	1.727		
	집단3	63	9.095	1.757		
비행	집단1	1150	12.280	1.508	0.581	
	집단2	657	12.224	1.806		
	집단3	63	12.095	0.465		

주1. 집단 1: 중간 유지 집단, 집단 2: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 집단 3: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증가하는 집단

주2. * $p < .05$; ** $p < .01$; *** $p < .001$

IV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하여 학교적응력의 발달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양상을 파악하고 발달양상에 있어 이질적인 잠재계층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그 잠재계층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요인들의 영향과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양상에서 도출된 잠재계층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시점에서 만족도와 비행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년간의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계층을 살펴본 결과 3가지 구별된 유형을 나타내는 잠재계층을 도출하였다. 3개의 잠재계층은 4년간 중간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이는 '중간 유지 집단', '초기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조금씩 감소하는 집단', '초기 매우 낮은 적응력을 보이다 조금씩 증가하는 집단'이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 구별된 특성을 보이는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 가지 유형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한 시점에서 나타나는 특성(예를 들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낮다')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적응에 있어 다양한 발달양상을 보이므로 이에 따라 다양하게 도움적 접근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양상에 따라 확인된 3개의 잠재계층을 구분하는데 있어 시점별로 어떤 변인이 예측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요인들이 유형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중간 유지집단에 비해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 경우에는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보다 중간 유지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주변에 의미있는 타자들로 지지체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이 비교적 학교적응력이 높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학교성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다문화청소년으로 겪게 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의미있는 사람들이 견고한 지지체계로 다문화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감소하는 집단을 중간 유지 집단과 비교해 본 결과, 초기 시점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나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요인들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시점에 높은 적응력을 보이다 점차 적응력이 감소하는 이유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력이 감소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다양한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학교적응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학교적응 발달양상에 따라 확인된 3개의 잠재계층이 중학교 1학년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적응력의 발달 양상에 따라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적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력의 양상을 잘 파악하고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22). 2022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교육안전정보국 교육통계과.
- 김지혜(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3), 115-124.
- 김희찬(2023). 다문화청소년 무단결석과 비행경험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30(3), 319-341.
-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 (혼혈청소년) 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박희훈, 오성배(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 배옥현(2018).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방안. **다문화와 인간**, 7(12), 1-30.
- 오정아, 변수정(2020).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경험.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7), 125-136.
- 이정은, 조미형(2007). 남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3), 79-102.
- 전병주. (2017).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상태가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및 국민정체성의 조절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18(1), 333-367.
- 정규석(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1), 235-252.
- 최지원, 한윤선(2021).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승어 능력,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탐구. **청소년복지연구**, 23(3), 1-28.
- McDougall, P., & Vaillancourt, T. (2015). Long-term adult outcomes of peer victimiz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athways to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American Psychologist*, 70(4), 300-310.
- Muthén, B.,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

- 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 Muthén, B., & Shedden, K. (1999). Finite mixture modeling with mixture outcomes using the EM algorithm. *Biometrics*, 55(2), 463-469.
- Petras, H., & Masyn, K. (2010). General growth mixture analysis with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hange. *Handbook of quantitative criminology*, 69-100.
- Wallinius, M., Delfin, C., Billstedt, E., Nilsson, T., Anckarsäter, H., & Hofvander, B. (2016). Offenders in emerging adulthood: School maladjustment, childhood adversities, and prediction of aggressive antisocial behaviors. *Law and Human Behavior*, 40(5), 551-563.
- Wirt, J., Snyder, T., Sable, J., Choy, S. P., Bae, Y., Stennett, J., ... & Perie, M. (1998). *The Condition of Education 1998*. US Department of Education, ED Pubs, PO Box 1398, Jessup, MD 20794-1398.

[부 록]

[부록1] 사용 변수 측정 문항 내용과 신뢰도

구분	변수명	문항 내용	값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주요 변수	학교생활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4	.755	.756	.784	.769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나는 우리학교 친구들이 좋다					
	가구유형	국제결혼가정=1, 중도입국가정=2, 외국인가정=3					
	성별	남=1, 여=2					
	차별피해경험	예=1, 아니오=2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	예=1, 아니오=2					
예측 요인	학교 밖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	예=1, 아니오=2					
	모학력	중졸이하=1, 고졸=2, 2~3년제졸업=3, 대학4년제 졸업=4, 대학원 졸업=5					
	가정경제수준	가정형편에 대한 지각	아주어렵다=1~ 아주잘산다=5				
	학교성적	주관적인 성적 수준	매우못한다=1~ 매우잘한다=5				

구분	변수명	문항 내용	값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문화적응스트레스	<p>다른 사람이 외국인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농담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p> <p>외국인부모님이 다른 나라 사람이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p> <p>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p> <p>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p> <p>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p> <p>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p> <p>나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p> <p>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p> <p>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못살게 군다</p>	전혀 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4	.890	.862	.899	.901
	스트레스	<p>평소 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p> <p>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p>	전혀 그런 적이 없다=1~자주 경험했다=4	.662	.650	.619	-
	자아존중감	<p>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p> <p>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p> <p>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p>	전혀 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4	.798	.818	.845	.885
	부모대화	<p>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빈도: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p> <p>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빈도: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p> <p>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빈도: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1차만)</p> <p>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빈도: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선거 등) (*1차만)</p>	거의하지않는다=1/월 1~3회=2/ 주1~3회=3/주4~6회=4/ 매일한다=5	.748	.756	.765	.774

구분	변수명	문항 내용	값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부모지지		부모님(보호자)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시다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4	.885	.886	.876	.865
		부모님(보호자)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시다					
		부모님(보호자)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주시다					
친구지지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4	.852	.844	.861	.871
		부모님(보호자)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물건, 장소 등)을 잘 제공해주신다					
교사지지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4	.846	.855	.870	.882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희망교육수준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교=4/ 대학원 이상=5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담임선생님은 날 걱정해주는 것 같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한번도 없었다=1/ 한달에 1~2번 있었다=2/ 한주에 1~2번 있었다=3/	.849	.802	.821	.839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심한 집적거림이나 놀림을 당했다					

구분	변수명	문항 내용	값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을 당했다					
		나에 대해 거짓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다	거의 매일 있었다=4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험한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당했다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우울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	-	-	-	.878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모든 일이 힘들다					
		성적만족도	전혀만족하지 않는다=1~ 매우만족한다=4				
		삶만족도	전혀 그렇지 않다=1~ 매우 그렇다=4	-	-	-	.829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결과 변수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전혀 없다=1/ 1년에 1~2번=2/ 한달에 1번=3/ 한달에				
		가출한 적이 있다	2~3번=4/ 1주일에 1번=5/ 1주일에 여러 번=6	-	-	-	.830
	비행	학교를 무단으로 빼먹은 적이 있다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구분	변수명	문항 내용	값	신뢰도			
				1차	2차	3차	4차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빙 뜯은) 적이 있다					
		폭력 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이성과 키스를 해본 적이 있다					
		이성과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학교에서 술, 담배, 머리, 옷, 화장 등을 규제하는 것이 싫다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행동(술, 담배, 머리, 옷, 화장 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업중단 위험요인 생활 및 태도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전혀그렇지않다=1~ 매우그렇다=4	-	-	-	.718
		빨리 돈을 벌고 싶다					
		부모와 자주 싸운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내 친구 중 자퇴를 한 친구가 있다					
		내 친구 중 학교까지 말고 놀자고 하는 친구가 있다					

[부록2] 2차 시점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034	1																		
(3)	.014	-.400**	1																	
(4)	.030	-.633**	-.104**	1																
(5)	-.061**	-.004	.011	-.003	1															
(6)	-.024	-.055*	.002	.062**	.016	1														
(7)	.044*	-.206**	.134**	.144**	.052*	.054*	1													
(8)	.040	-.077**	.054*	.051*	.000	-.002	.121**	1												
(9)	.319**	.017	.016	-.031	.029	-.073**	.080**	.082**	1											
(10)	-.239**	-.127**	.055*	.108**	.019	.110**	.011	-.023	-.164**	1										
(11)	-.137**	.047*	-.008	-.049*	-.021	.129**	-.028	-.127**	-.067**	.091**	1									
(12)	.359**	-.038	.013	.035	.000	-.083**	.028	.054*	.268**	-.210**	-.197**	1								
(13)	-.097**	.005	.019	-.018	.082**	.263**	.007	-.009	-.069**	.134**	.297**	-.133**	1							
(14)	.171**	-.102**	.055*	.079**	-.024	.000	.090**	.085**	.128**	.042	-.103**	.204**	-.018	1						
(15)	.359**	-.058**	.020	.053*	.011	-.052*	.093**	.101**	.237**	-.207**	-.209**	.448**	-.111**	.358**	1					
(16)	.447**	.003	-.006	.001	-.102**	-.009	.046*	.011	.270**	-.185**	-.136**	.404**	-.134**	.194**	.364**	1				
(17)	.507**	-.002	.006	-.003	-.065**	-.033	.016	.038	.295**	-.187**	-.117**	.418**	-.115**	.203**	.391**	.511**	1			
(18)	.143**	-.059**	.023	.052*	-.014	-.014	.135**	.064**	.223**	-.003	-.093**	.144**	-.050*	.172**	.184**	.122**	.118**	1		
(19)	.225**	-.035	.044*	.009	-.073**	-.015	.006	.043	.145**	-.116**	-.100**	.185**	-.023	.108**	.241**	.192**	.256**	.084**	1	
(20)	.161**	-.051*	.021	.044*	-.058**	.022	-.006	.016	.105**	-.079**	.008	.162**	.035	.111**	.196**	.174**	.149**	.058**	.246**	1
M	12.696	0.709	0.061	0.141	0.515	1.979	2.129	2.725	3.309	11.276	3.537	9.723	6.341	4.958	19.551	11.389	11.224	3.850	1.153	1.480
SD	1.897	0.454	0.240	0.348	0.500	0.142	1.052	0.689	0.754	3.214	1.454	1.641	1.252	2.287	3.173	2.118	2.151	0.645	0.360	0.500

주1. (1) 학교생활, (2) 국제결혼가정, (3) 중도입국가정, (4) 외국인가정, (5) 성별(남), (6) 차별경험, (7) 모학력, (8) 가정경제수준, (9) 학교성적, (10) 문화적응스트레스, (11) 스트레스, (12) 자존감, (13) 괴롭힘피해, (14) 부모대화, (15) 부모지지, (16) 친구지지, (17) 교사지지, (18) 희망교육수준, (19) 학내도와주는어른, (20) 학밖도와주는어른;

주2. ** $p < .01$, * $p < .05$

[부록3] 3차 시점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033	1																		
(3)	-.002	-.367**	1																	
(4)	.039	-.583**	-.098**	1																
(5)	-.017	-.010	.015	.001	1															
(6)	.015	-.054*	.057*	.023	-.017	1														
(7)	.020	-.197**	.130**	.137**	.054*	.032	1													
(8)	.051*	-.045*	.012	.043	.001	.004	.075**	1												
(9)	.372**	.016	.013	-.027	.044*	-.034	.089**	.075**	1											
(10)	-.295**	.002	.036	-.036	-.081	.172**	.024	.019	-.220**	1										
(11)	-.120**	.035	.032	-.062**	-.032	.161**	-.009	-.084**	-.081**	.088	1									
(12)	.422**	-.026	.030	.010	.039	-.064**	.048*	.062**	.338**	-.331**	-.249**	1								
(13)	.002	-.009	-.003	.013	.039	.289**	-.006	-.041	-.058*	.102	.261**	-.078**	1							
(14)	.126**	-.095**	.069**	.061**	-.029	.011	.071**	.085**	.079**	.046	-.111**	.201**	.000	1						
(15)	.411**	-.076**	.009	.081**	.009	-.054*	.099**	.077**	.269**	-.337**	-.188**	.481**	-.020	.381**	1					
(16)	.483**	.002	.007	-.008	-.128**	-.009	.016	.050*	.304**	-.257**	-.107**	.399**	-.046*	.148**	.339**	1				
(17)	.560**	-.018	.014	.010	-.029	.009	.052*	.040	.363**	-.206**	-.063**	.401**	.004	.113**	.374**	.505**	1			
(18)	.196**	-.052*	.029	.040	-.053*	-.043	.071**	.074**	.220**	-.028	-.119**	.144**	-.141**	.108**	.165**	.143**	.133**	1		
(19)	.248**	.025	-.001	-.028	-.009	-.036	-.047*	.039	.181**	-.223**	-.115**	.230**	.001	.068**	.262**	.208**	.262**	.077**	1	
(20)	-.177**	.027	-.037	-.006	.038	-.004	-.001	-.022	-.145**	.108*	.063**	-.191**	.007	-.104**	-.235**	-.158**	-.144**	-.061**	-.265**	1
M	12.801	.687	.058	.134	.520	.010	2.130	2.720	3.42	12.237	3.640	9.758	6.253	4.900	19.444	11.566	11.468	3.880	.880	1.460
SD	1.891	.464	.234	.341	.500	.116	1.052	.649	.797	3.972	1.404	1.608	1.105	2.221	2.994	2.051	2.187	.570	.327	.499

주1. (1) 학교생활, (2) 국제결혼가정, (3) 중도입국가정, (4) 외국인가정, (5) 성별(남), (6) 차별경험, (7) 모학력, (8) 가정경제수준, (9) 학교성적, (10) 문화적응스트레스, (11) 스트레스, (12) 자존감, (13) 괴롭힘피해, (14) 부모대화, (15) 부모지지, (16) 친구지지, (17) 교사지지, (18) 희망교육수준, (19) 학내도와주는어른, (20) 학밖도와주는어른;

주2. ** $p < .01$, * $p < .05$

[부록4] 4차 시점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	1																			
(2)	-.040	1																		
(3)	.037	-.332**	1																	
(4)	.020	-.516**	-.090**	1																
(5)	.002	-.006	.025	-.010	1															
(6)	-.058*	-.012	.032	-.008	.021	1														
(7)	.036	-.189**	.132**	.126**	.069**	.037	1													
(8)	.034	-.063**	.030	.051*	.009	-.002	.114**	1												
(9)	.271**	-.004	.019	-.008	.065**	-.048*	.115**	.092**	1											
(10)	-.251**	. ^c	.003	-.003	.023	.174**	-.053	-.070	-.141*	1										
(11)	-.305**	-.013	.020	.001	-.067**	.124**	-.035	-.071**	-.223**	.199**	1									
(12)	.428**	.020	.006	-.028	.100**	-.102**	.058*	.063**	.267**	-.157**	-.520**	1								
(13)	-.090**	-.048*	.042	.026	.037	.217**	.019	.017	-.021	.164**	.225**	-.110**	1							
(14)	.153**	-.034	.044	.009	-.069**	.021	.079**	.036	.132**	-.055	-.194**	.209**	.021	1						
(15)	.382**	-.031	.007	.031	.045*	-.014	.127**	.100**	.226**	-.144*	-.381**	.464**	-.046*	.375**	1					
(16)	.461**	.012	.027	-.033	-.100**	-.046*	.070**	-.013	.204**	-.282**	-.298**	.401**	-.124**	.182**	.371**	1				
(17)	.505**	-.012	.016	.003	-.059*	-.020	.075**	.018	.222**	-.238**	-.198**	.374**	-.026	.150**	.399**	.507**	1			
(18)	.163**	-.079**	.041	.063**	-.024	-.044	.080**	.032	.202**	-.098	-.100**	.103**	-.097**	.086**	.160**	.070**	.095**	1		
(19)	-.198**	.029	-.013	-.024	.015	.103**	.000	-.034	-.081**	.154**	.167**	-.182**	.052*	-.058*	-.182**	-.191**	-.249**	-.024	1	
(20)	-.148**	.044	-.030	-.029	.019	-.009	-.009	-.074**	-.106**	.103	.083**	-.108**	.002	-.115**	-.174**	-.140**	-.146**	-.088**	.264**	1
M	12.636	0.656	0.055	0.123	0.510	0.020	2.110	2.730	3.180	12.699	7.784	9.725	0.792	4.882	19.305	11.755	11.564	3.940	1.100	1.470
SD	1.868	0.475	0.228	0.328	0.500	0.130	1.045	0.649	0.753	3.920	2.819	1.706	0.053	2.164	2.912	2.002	2.099	0.481	0.306	0.499

주1. (1) 학교생활, (2) 국제결혼가정, (3) 중도입국가정, (4) 외국인가정, (5) 성별(남), (6) 차별경험, (7) 모학력, (8) 가정경제수준, (9) 학교성적, (10) 문화적응스트레스, (11) 스트레스, (12) 자존감, (13) 괴롭힘피해, (14) 부모대화, (15) 부모지지, (16) 친구지지, (17) 교사지지, (18) 희망교육수준, (19) 학내도와주는어른, (20) 학밖도와주는어른;

주2. ** $p < .01$, * $p < .05$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 Ⅱ: 진로진학

- 김지혜(서강대학교 교수)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 II

진로진학: 어디에서의 삶을 꿈꾸는가?

김지혜 | 사회학과
2023/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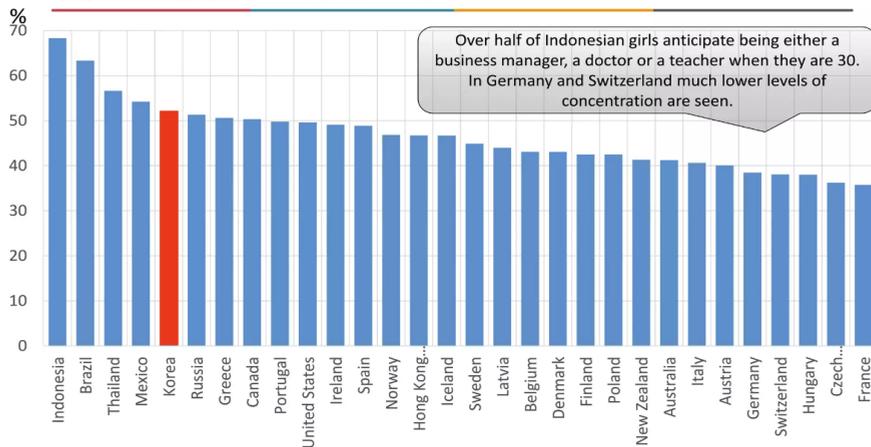
1 / 27

한국 청소년 진로(2018)

- 의사, 교사, 변호사, 비즈니스 매니저, 엔지니어, 경찰 등 인기있는 10가지 직업을 희망
-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한국 청소년들은 비슷한 커리어를 희망하는 경향이 높음

Concentration of occupational expectations by country

Percentage of students naming 10 most popular occup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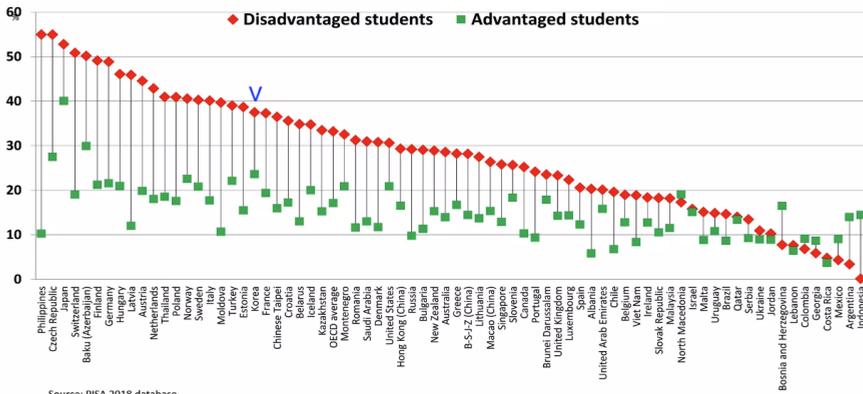
출처: OECD "Dream Jobs: Teenagers' Career Aspirations and the Future of Work(2020)"

2 / 27

한국 청소년 진로(2018)

- 성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관리자를 희망하지 않는 비율
-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이러한 경향성은 가정배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남

High performers who do not expect to be professionals or managers



Source: PISA 2018 database

출처: OECD "Dream Jobs: Teenagers' Career Aspirations and the Future of Work(2020)"

한국 중학생 희망직업(2007-2022)

- 교사, 의사 상위권, 공무원 순위 하락
- 컴퓨터공학자 등 온라인 기반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

	2007	2015	2022
1	교사	교사	교사
2	의사	경찰	의사
3	연예인	요리사	운동선수
4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경찰관, 수사관
5	공무원	운동선수	컴퓨터공학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6	교수	정보시스템 및 보안전문가	군인
7	경찰	건축가, 건축디자이너	시각디자이너
8	요리사	공무원	요리사, 조리사
9	패션디자이너	간호사	뷰티디자이너
10	운동선수	군인	공무원

출처: 교육부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보도자료

한국 다문화청소년 현황(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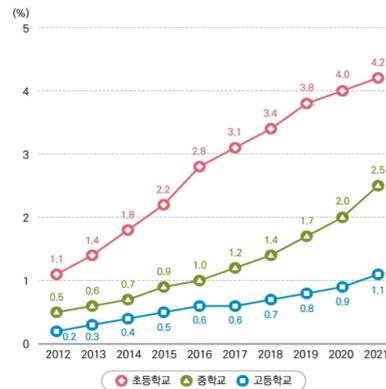
- 학령기 인구 감소
- 다문화 학생 증가 (2013 > 2022)
 - 5만 6천명 > 16만 9천명
 - 0.9% > 3.2%



출처: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 통계" (2023/05/30)

한국 다문화청소년 현황(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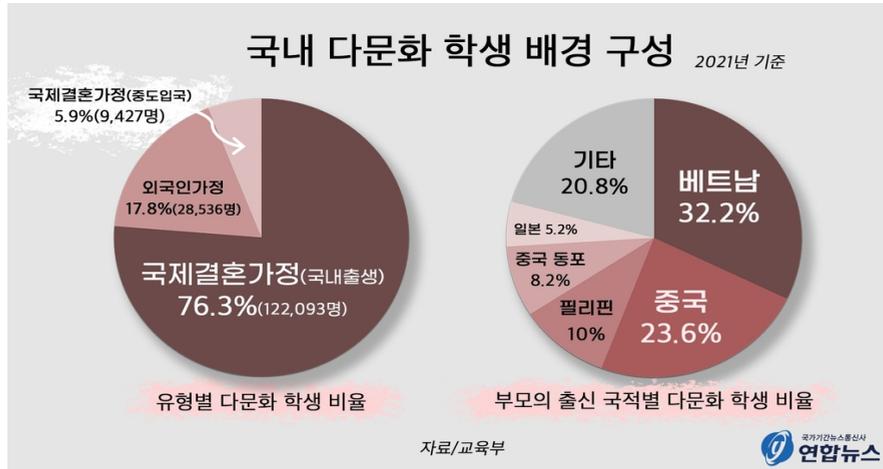
-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2012 > 2021, 교육통계)
 - **초등학교**: 1.1 > 4.2%
 - **중학교**: 0.5 > 2.5%
 - **고등학교**: 0.2 > 1.1%



| 그림 II-3-1 | 연도별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비율(2012~2021)

한국 다문화청소년 배경(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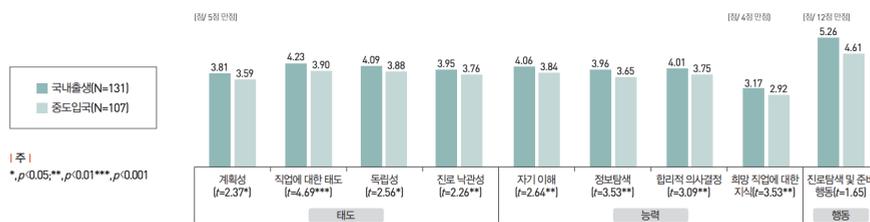
- 가구유형: 75% 국내출생, 18% 외국인가정, 6% 중도입국
- 부모출신배경: 베트남, 중국, 필리핀 순



출처: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한국의 다문화청소년 진로성숙도(2023)

- 17-24세 다문화청소년 238명 (국내출생자/중도입국자, 2022년 여름)
-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 대비,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음



[그림 3] 다문화청소년의 국내·외 출생별 진로 성숙도 수준 비교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취약청소년의 자립과 취업지원방안(2022): 다문화청소년>

선행연구

- 다문화청소년 이중문화수용과 학교적응의 관계
 - 잘 적응한 학생이 더 뚜렷한 진로태도/의식을 보임(김자경/오혜정 2021; 이래혁/이재경 2021)
- | **이중문화수용의 획일적 개념화**
- 다문화청소년 정체성의 중요성(이희정 2018)
 -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
- | **청소년 진로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음**
- 진로결정에 부모의 중요성
 - 다문화가정 배경과 상관없이 부모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발견들(김혜미/문혜진 2021)
 - 다문화청소년 진로결정성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 (김자경/오혜정 2021)
 - 다문화가정 부모의 높은 기대나 관여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발견도 있음 (전혜숙/김진영/전종설 2019; 최정석/최석규 2020)

| **다문화 청소년의 특수성(가우유형 등)을 섬세하게 고려할 필요**

9 / 27

청소년기 정체성

정체성은 개인 행동을 견인하는 신념, 이상, 가치들을 의미함

- 10대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경험
-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아를 발전시켜 나감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국가정체성**을 강하게 경험하게 될 것

- 내가 특정 국가에 속한다는 정체성과 더불어, 한데 속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내는 범주화(categorization) 과정을 거쳐 형성됨
- 다문화 청소년이 속한 학교, 지역사회, 사회 안에서 경험한 사회적 관계나, 문화적 포용성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

| **!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무엇이 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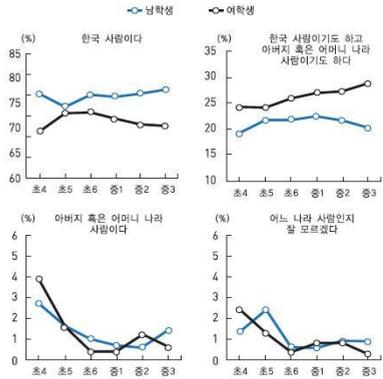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이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냄

10 / 27

청소년 연령별 국가정체성 변화

- 연령이 증가할 수록, 아버지/어머니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확연하게 줄어
-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한국사람보다는 "이중국적" 정체성을 뚜렷하게 보임

[그림 III-35] 다문화가정 학생의 성별 국적에 대한 인식, 2011~2016



[단독] "고내 처벌 너무 힘들어요"... 학업 중단 30%가 '부적응' [학교 밖 떠도는 다문화 청소년들]

기사일 2022-02-22 08:00:08
기사일 2022-02-22 13:20:17

5년세 학업 중단 5705명... 생업 위해 단순직 내몰리기도

외모 달라 학교 부적응 호소
학교 등급 올라갈수록 심해
교문 밖 학생 지원정책 전무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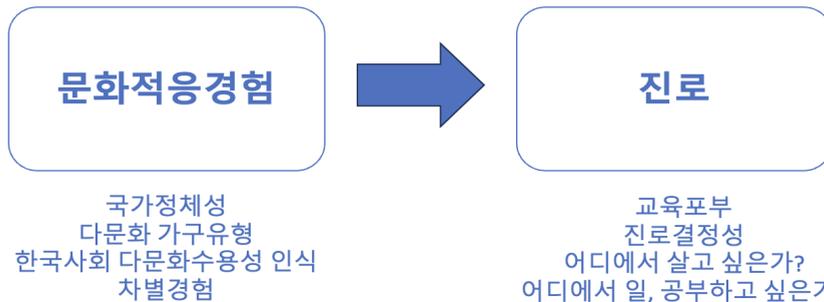
사교육 등 받을 형편 안 돼 사실상 방치
13~18세 서비스업 등 중사 비중 60%
전문직 관련·사무직 비율 9.7%에 그쳐

차별 경험 다문화 학생들 "참고 넘겼다"
교우관계 형성 못해 학업 지장 막을한
전문가 "학생 다문화 감수성 키워줘야"

주: 1) 국적에 대한 인식은 "학생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연구목표

- 청소년 진로 개념 확장: 진로결정성 > 교육포부, 살고 싶은 나라 등
 - 개인의 적성, 흥미, 능력을 알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
 - 행복한 개인으로서 학문세계와 앞으로의 직업세계, 삶을 밀접하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 (국가)정체성 형성의 주요단계: 초등학교 > 중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 문화적응 역시, 다양하게 개념화: 한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데이터 및 연구방법

다문화청소년패널 2기 코호트

- 3차년도(2021, 초6) - 4차년도(2022, 중1)
- N = 1,872

회귀분석

- OLS
- Logit, Multinomial Logit

측정

- 종속변수는 4차년도(중1) 응답을 활용함
- 독립/통제변수는 3차년도(초6) 응답을 활용함

13 / 27

측정: 종속변수(continued)

- 교육포부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5= 대학원 이상)
- 진로결정성(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 (RC)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 (RC)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기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 (RC) 주위 사람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 (RC)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 (RC)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 (RC)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 희망직업
 - 기타(ref)
 - 전문가/관리자

14 / 27

측정: 종속변수

- 한국거주희망수준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 타국거주희망수준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 나는 앞으로 모국(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 한국학업희망수준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 타국학업희망수준 (1= 전혀 그렇지 않다; 4= 매우 그렇다)
 - 나는 모국(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 학업 후 일하고 싶은 나라 (w3 초6 > w4 중3)
 - 모두 한국
 - 한국 > 본국/외국인 부모 나라(타국)
 - 본국/외국인 부모 나라(타국) > 한국
 - 모두 본국/외국인 부모 나라(타국)

15 / 27

측정: 독립변수

- 정체성
 - 한국 사람(ref)
 - 본국 / 외국인 부모 나라 사람
 -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나라
 - 잘 모르겠음
- 다문화가구유형
 -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ref)
 - 중도입국가정
 - 외국인가정
-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인식 (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을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 1차년도(초4)에만 측정됨

16 / 27

측정: 통제변수(continued)

- 차별경험여부
- 사회적 역량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린다
 - 다른 사람과 협력을 잘 한다
 - 다른 사람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잘 해결한다
- 성별
 - 남학생(ref)
 - 여학생
- 로그 월평균 가구소득
- 어머니 교육수준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학(2~3년제) 졸업; 4=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5= 대학원 졸업(석박사))

17 / 27

측정: 통제변수(continued)

- 부모지지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 부모님(보호자)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줍니다
 - 부모님(보호자)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줍니다
 - 부모님(보호자)은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줍니다
 -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 부모님(보호자)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줍니다
 -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물건, 장소 등)을 잘 제공해줍니다
- 부모방임 (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 부모님(보호자)은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칭찬을 하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 (RC)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 (RC) 부모님(보호자)은 내 몸이나, 옷, 이발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쓰신다

18 / 27

측정: 통제변수

- 교사관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 우리 담임선생님은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날 걱정해주는 것 같다
 -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
- 친구관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 학교성적: 주관적 성적수준(1=매우 못한다; 5=매우 잘한다)

분석결과

변수	교육포부 b (SE)	진로결정성 b (SE)	희망직업 (Logit) b (SE)	OR
정체성				
(ref= 한국사람)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0.039 (0.054)	0.128* (0.064)	0.047 (0.055)	1.048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0.038 (0.028)	-0.003 (0.033)	0.062* (0.029)	1.064
잘 모르겠다 & 기타	-0.029 (0.078)	0.145 (0.092)	0.103 (0.080)	1.109
다문화가구유형				
(ref=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0.079 (0.042)	0.026 (0.050)	0.085 (0.044)	1.089
외국인가정	0.085* (0.037)	-0.017 (0.044)	0.073 (0.038)	1.075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인식	-0.036* (0.016)	0.002 (0.019)	-0.009 (0.017)	0.991
차별경험	0.001 (0.093)	-0.183 (0.110)	0.014 (0.096)	1.015
사회적 역량	0.012 (0.020)	0.0002 (0.024)	0.027 (0.020)	1.028
Observations	1,872	1,872	1,872	
R2	0.041	0.026		
Log Likelihood			-1,298.033	

* p<.05, ** p<.01, *** p<.001

본인을 "한국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거주나 학업, 직장생활 또한 희망하지 않는다. 한국/본국 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변수	한국거주희망 b (SE)	타국거주희망 b (SE)	한국학업희망 b (SE)	타국학업희망 b (SE)
정체성 (ref= 한국사람)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0.314*** (0.070)	0.257** (0.083)	-0.310*** (0.073)	0.258** (0.081)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0.155*** (0.037)	0.177*** (0.043)	-0.091* (0.038)	0.138** (0.042)
잘 모르겠다 & 기타	-0.359*** (0.102)	0.196 (0.120)	-0.359*** (0.107)	0.277* (0.118)
다문화가구유형 (ref=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0.026 (0.055)	0.038 (0.065)	0.012 (0.058)	0.039 (0.064)
외국인가정	0.043 (0.048)	-0.128* (0.057)	0.129* (0.051)	-0.038 (0.056)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인식	0.099*** (0.021)	-0.057* (0.025)	0.110*** (0.022)	-0.063* (0.025)
차별경험	-0.016 (0.122)	0.008 (0.144)	0.090 (0.127)	0.061 (0.141)
사회적 역량	0.063* (0.026)	-0.060 (0.031)	0.082** (0.027)	-0.032 (0.030)
Observations	1,872	1,872	1,872	1,872
R2	0.057	0.031	0.050	0.024

* p<.05, ** p<.01, *** p<.001

21 / 27

한국사회가 포용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들일수록, 한국에서의 삶을 더 꿈꾸는 것으로 확인된다.

변수	한국거주희망 b (SE)	타국거주희망 b (SE)	한국학업희망 b (SE)	타국학업희망 b (SE)
정체성 (ref= 한국사람)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0.314*** (0.070)	0.257** (0.083)	-0.310*** (0.073)	0.258** (0.081)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0.155*** (0.037)	0.177*** (0.043)	-0.091* (0.038)	0.138** (0.042)
잘 모르겠다 & 기타	-0.359*** (0.102)	0.196 (0.120)	-0.359*** (0.107)	0.277* (0.118)
다문화가구유형 (ref=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0.026 (0.055)	0.038 (0.065)	0.012 (0.058)	0.039 (0.064)
외국인가정	0.043 (0.048)	-0.128* (0.057)	0.129* (0.051)	-0.038 (0.056)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인식	0.099*** (0.021)	-0.057* (0.025)	0.110*** (0.022)	-0.063* (0.025)
차별경험	-0.016 (0.122)	0.008 (0.144)	0.090 (0.127)	0.061 (0.141)
사회적 역량	0.063* (0.026)	-0.060 (0.031)	0.082** (0.027)	-0.032 (0.030)
Observations	1,872	1,872	1,872	1,872
R2	0.057	0.031	0.050	0.024

* p<.05, ** p<.01, *** p<.001

22 / 27

본인을 "한국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 향후 일하고 싶은 국가가 계속 변화하거나, 타국에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희망한다.

변수	학업 후 일하고 싶은 국가 (ref= W3-4 모두 한국)					
	한국 > 타국		타국 > 한국		모두 타국	
	b (SE)	RRR	b (SE)	RRR	B (SE)	RRR
정체성 (ref= 한국사람)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1.301*** (0.361)	3.674	1.475*** (0.328)	4.373	2.450*** (0.327)	11.590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0.974*** (0.192)	2.648	1.054*** (0.171)	2.868	1.829*** (0.180)	6.226
잘 모르겠다 & 기타	0.873 (0.528)	2.395	0.665 (0.526)	1.945	2.193*** (0.413)	8.958
다문화가구유형 (ref=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0.324 (0.297)	1.383	0.364 (0.259)	1.438	0.659** (0.251)	1.933
외국인가정	-0.132 (0.257)	0.876	-0.344 (0.240)	0.709	-0.668** (0.252)	0.513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인식	0.215 (0.119)	1.240	0.228* (0.106)	1.256	0.055 (0.115)	1.057
차별경험	0.151 (0.595)	1.163	-0.109 (0.596)	0.897	-0.139 (0.576)	0.870
사회적 역량	0.083 (0.144)	1.087	0.110 (0.130)	1.117	-0.052 (0.140)	0.949

* p<.05, ** p<.01, *** p<.001

23 / 27

국내출생 학생들에 비해, 중도입국가정 학생들은 "모두 타국"이라고 응답하고, 외국인가정 학생들은 "모두 한국"이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학업 후 일하고 싶은 국가 (ref= W3-4 모두 한국)					
	한국 > 타국		타국 > 한국		모두 타국	
	b (SE)	RRR	b (SE)	RRR	B (SE)	RRR
정체성 (ref= 한국사람)						
본국/외국인부모 나라	1.301*** (0.361)	3.674	1.475*** (0.328)	4.373	2.450*** (0.327)	11.590
한국 + 본국/외국인부모	0.974*** (0.192)	2.648	1.054*** (0.171)	2.868	1.829*** (0.180)	6.226
잘 모르겠다 & 기타	0.873 (0.528)	2.395	0.665 (0.526)	1.945	2.193*** (0.413)	8.958
다문화가구유형 (ref=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0.324 (0.297)	1.383	0.364 (0.259)	1.438	0.659** (0.251)	1.933
외국인가정	-0.132 (0.257)	0.876	-0.344 (0.240)	0.709	-0.668** (0.252)	0.513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인식	0.215 (0.119)	1.240	0.228* (0.106)	1.256	0.055 (0.115)	1.057
차별경험	0.151 (0.595)	1.163	-0.109 (0.596)	0.897	-0.139 (0.576)	0.870
사회적 역량	0.083 (0.144)	1.087	0.110 (0.130)	1.117	-0.052 (0.140)	0.949

* p<.05, ** p<.01, *** p<.001

24 / 27

분석결과 요약

국가정체성이 중요한

- '한국사람' 정체성을 가진 경우 (기타 정체성에 비해)
 - 한국에서 살고 싶어 하거나, 한국에서 학업/일을 이어가고 싶어함
 - 학교를 마치고 일하고 싶은 나라에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초6-중1 모두 한국)
- '부모나라' 혹은 '한국과 부모나라 둘다' 정체성을 가진 경우 ('한국사람' 정체성에 비해)
 - '부모나라'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높고
 - 학교를 마치고 일하고 싶은 나라 응답에 있어 변동성이 높음 (한국에서 다른나라로, 다른나라에서 한국으로 등)

한국사회 포용성 인식 역시 중요한

- 한국사회 포용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 한국에 머무는 삶을 꿈꾸는 것으로 확인
 - 학교를 마치고 떠나고 싶어했던 학생들도, 다시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남

25 / 27

결론

- 다문화 청소년 국가정체성이 갖는 의미: 어느 사회에서의 삶을 꿈꾸는지와 밀접한 관련
- 한국사회의 포용성은 한국사회에서의 삶을 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배제, 혐오가 증가하는 시대에 이러한 '간접경험' 역시 청소년의 적응과 진로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6 / 27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안

- 초등학교 > 중학교 전환기의 학생 대상으로 했기에, 더 넓은 스펙트럼의 다문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청소년패널을 활용한 추가분석에서) 부모 출신국가에 따른 차이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출신국가별 문화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한 후속연구가 요구됨
- 한국인 부모를 둔 청소년과의 비교분석 가능성



제51회 청소년정책포럼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종합토론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 I: 학교적응」에 대한 토론

토론자: 박용한(충남대학교 교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초기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춘기이며 정체성이 형성되고 다양한 욕구 간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역동적 발달의 시기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초기 청소년기 발달 상 신체적·심리적 특이성뿐만 아니라 수업형태 등 학교 환경에서의 변화로 인하여 이들이 하루 일과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이러한 전환기 효과(transition effect; Ryan, Shim, & Makara, 2013)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게 더욱 두드러질 수 있는데, 이들은 초기 청소년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어려움에 더하여 다문화적 배경이 야기하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중적 취약함(double disadvantage)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박용한, 이신동, 2017).

이렇게 볼 때, 다문화 배경을 가진 초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적응을 탐색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현장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초기 청소년기라 볼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2019년)부터 중학교 1학년(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 2,245명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종단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들의 학교적응 발달상 유형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러한 유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성장혼합모형, 다항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일원변량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토론자로서 이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분석이나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에 대해 최근 여러 분야 연구에서 그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중심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변인중

심접근에 비하여 개인중심접근의 적용은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서의 특성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집단 내 이질성을 검증하여 유사한 학교적응 발달 유형을 가진 다문화청소년들을 범주화함으로써 각 범주의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이은주, 임성애, 2018). 둘째,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유형을 예측하는 여러 요인이 확인되었는데, 특히 부모, 친구, 교사 등 다문화청소년 주변의 의미있는 타자들로부터의 지지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신체적·심리적·환경적 변화를 마주하는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부모와 교사 그리고 친구들과로부터의 따뜻한 관심과 심리적 지지가 이루어질 때 이들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변인중심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을 적용하여 초4-중2까지 학교적응의 변화를 예측하는 변인을 탐색한 박용한, 이신동(2017)의 연구에서도 부모, 친구, 교사로로부터의 지지가 학교적응의 긍정적인 변화를 예측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지지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사회적 지지는 지지의 관여자 간에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최근 교육 현장에서 표면화된 문제들을 포함하여 교육주체 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교적응 발달 유형에 따른 결과변수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분석에서 학교적응 발달 유형이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한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학교적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집단2)이 중간 유지 집단(집단1)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낮았으나 점차 개선되는 집단(집단3)보다도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는 가능한 조기에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내용 및 결과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분석이나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 성장혼합모형이라는 체계적인 방법 및 절차를 통하여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 유형을 세 집단으로 제안하였는데, [그림 1]의 연구모형으로 추정하면 선형적인 발달을 전제하여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도출된 학교적응 발달 유형의 집단 수도 다양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중 전환기를 포함하고 있는 이 연구의 특성상 연구대상자인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이 단순히 선형적으로만 변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성장모형의 기울기, 즉 변화율에서 비선형성을 고려하거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시점의 특수성을 고려한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구유형(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고 두드러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문화가구의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 유형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다문화가구의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유형 분류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서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청소년 학교적응발달 유형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 나타난 변인 중 하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경우 국제결혼가정보다는 중도입국가정이나 외국인가정의 청소년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가구유형별 특징적인 학교적응 발달의 예측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면 이들에게 대한 맞춤형 지원을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용한, 이신동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학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1-19.
- 이은주, 임성애 (2018). 청소년기 자기결정성 동기 프로파일의 잠재전이분석 및 영향요인 검증. *교육심리연구*, 32(3), 471-494.
- Ryan, A. M., Shim, S. S., & Makara, K. A. (2013). Changes in academic adjustment and relational self-worth across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9), 1372-1384.

「다문화 청소년 종단연구 분석결과Ⅱ - 진로진학: 어디에서의 삶을 꿈꾸는가?」에 대한 토론

토론자: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나타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인식에서 국가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는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지원과 관련하여 흥미롭고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부분을 부각하고 앞으로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정체성 형성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한국 사회 적응과 통합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다루는 것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한국 사회에 살거나 한국에서 학업이나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반드시 한국 사회에서 거주하고 직업활동을 하는 것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개발에서 유일한 길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부모 나라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진로를 탐색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자원을 유리하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길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다문화청소년에게 개념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세계시민이나 글로벌 정체성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다문화청소년들의 대다수는 한국 국적이고, 앞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전문직/관리직 직업에 대한 희망은 한국과 부모나라 정체성을 함께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집단 또는 이주민 자녀로서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책적으로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이주민 집단출신으로 긍정적 정체성 형성하기 위한 기회와 경험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어떤 경험과 활동이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사회적 다문화수용성 인식의 중요성

이 연구에서 또 다른 의미 있는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한국에서 거주하고, 학업 또는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정도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청소년들의 정주와 진로 발달을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선주민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사회 시민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으로서 다문화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에서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보다는 성인들의 다문화수용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활성화가 좀 더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이 이주민 중심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신뢰롭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검토해야 할 사항들도 있다. 특히 동일한 독립변수들이라고 하더라도 종속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해석이 필요하다.

(1) 한국 사회의 다문화수용성 변수는 한국 거주와 학업 또는 취업 희망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교육포부에 대해서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교육포부를 낮추면서 정주 희망을 높인다는 것인데, 이것이 이주민의 정착과 관련하여 무엇을 함의하는지 사회적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변수의 측정 문항이 ‘한국사람들은 외국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한국사람들은 외국출신 사람들을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등 2개 문항으로 되어 있어 충분치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수용성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청소년의 교육 및 진로 발달의 관련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진로결정성에 대한 정체성 변수의 분석 결과도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는 본국/부모 나라 정체성을 갖춘 청소년이 한국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보다 진로결정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진로결정성에 대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가 달리 나타나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석모형에서 누락된 중요 변수가 정체성 변수(특히 본국/부모나라 정체성)와 관련이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 변수가 진로결정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이유가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학업 후 일하고 싶은 국가의 변화에 대한 다문화가구 유형의 결과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 추가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분석 결과, 초6과 중1 시점 학업 후 일하고 싶은 국가에 대한 응답 결과가 국내출생 학생들을 기준으로 할 때 중도입 국가정 학생들은 "모두 타국"이라고 응답하고, 외국인가정 학생들은 "모두 한국"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흥미롭지만 의아스러운 점은 앞으로 귀국할 가능성이 큰 외국인가구 청소년들보다 중도입국가정 청소년들이 학업 후 타국에서 일하고 싶은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외국인가가 주로 이주노동자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들은 한국에서의 정주를 좀 더 강하게 희망한다는 점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는 중도입국학생들의 한국사회 부적응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세밀한 분석 모형을 통해서 탐구될 필요가 있다.

제51회 청소년정책포럼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정책사례 및 발전방안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 안진심(연수중학교 교사)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발표자: 안진심(연수중학교 교사)

I 들어가며

1. 징검다리 교육과정이란?1)

- 1) 대상: 초·중학교 (편)입학 예정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자녀
- 2) 구성방식: 학교 여건에 따라 4~40시간(2주 이내)까지 모듈형으로 구성
- 3) 교육내용: 학교급 전환기 및 학습자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 입학 후 경험하게 될 의 사소통과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학습요소 구성
- 4) 운영방식: 중도입국·외국인 가정 자녀의 모국어 및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담당 교사와 다문화 언어 강사가 함께 지도(Co-teaching)
- 5) 운영시기: 2학기에 편입학하는 다문화학생을 고려하여 징검다리과정 운영을 입학 전(1-2월) 및 2학기 시작 전(7~8월)으로 구분

1)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3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안). 2023. 2.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10쪽 <참고: 징검다리 운영 개요> 발췌.

2. 연수중학교 다문화 학생 현황

1) 2023년 4월 1일 기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급수(개)		6	6	6				18
전체 학생 수(명)		119	152	158				429
다문화학생 수 (명)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0	8	7			15
		중도입국	0	0	0			0
	외국인가정자녀		20	43	37			100
	계		20	51	44			115
다문화학생 재학 비율(%)		16.8	33.5	27.6				26.8

2) 2023년 7월 19일 기준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학급수(개)		6	6	6				18
전체 학생 수(명)		119	152	158				429
다문화학생 수 (명)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0	8	7			15
		중도입국	0	0	0			0
	외국인가정자녀		21	43	40			104
	계		21	51	47			119
다문화학생 재학 비율(%)		17.6	33.5	29.7				27.7

3) 연수중학교의 경우, 인근에 함박마을²⁾이 있어, 다문화 학생 중 ‘외국인 가정 자녀’의 비율이 높은 편임. 출신국은 다양하나, 파란색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러시아어를 쓰는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임. 3월 말부터 취학한 학생들이 있으며, 7월 19일까지 총 7명의 외국인 학생이 취학하였음. 이중 중국 국적 학생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학생임. 특히 6월~7월 3명의 외국인 학생이 취학함.

3. 연수중학교 다문화 학생 추이

(2019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매년 4월 1일 기준.)

연수중학교의 경우, 2018년부터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였음. 2018년보다 2019년에 외국인 가정 자녀 숫자가 증가하였으나 전체 재학생의 10% 미만이었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이 낮아졌음. 2021년에는 눈에 띄게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 수가 증가하였고, 2022년 신입생의 경우, 해당 학년의 30% 이상의 비율이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들이었음. 당시 학급수가 5학급이었고, 학급당 학생 정원이 30명 안팎인 상황 속에서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들의 경우 반마다 10명 내외를 차지하게 됨. 또한 한국어 수준도 매우 낮은 편이라 대부분의 학생이 한국어 교육이 시급한 편이었음. 2023년의 경우,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고, 학급수가 늘어나기도 하였고, 예상외로 신입생 중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들이 적게 입학하였음. (최대 입학 예상인원 60명, 최소 입학 예상인원 40명. 실제 3월 1일 기준 입학 인원은 17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학생 수(명)			367	396	440	495	429
다문화학생 수 (명)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1	1	3	11	15
		중도입국	2	1	5	6	0
	외국인가정자녀		35	42	61	96	100
	계		38	44	69	113	115
다문화학생 재학 비율(%)			10.3	11.11	15.7	23	26.8

2) 외국인 밀집 지역. 러시아어를 쓰는 외국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음. 고려인 3,4세가 많음. 연수중학교에 주로 배정되는 인근 초등학교의 경우, 이 마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음. 저학년은 많으면 외국인 비율이 70% 정도이며 고학년의 경우도 50~60%에 이룸.

II 연수중학교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계획 및 실제

1.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계획

1) 징검다리 교육과정 신청 기간: 2023년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순 전에는 신청해야 함.

2) 2022년 2학기 학사일정의 특수성: 연수중학교의 경우, 2022년도에 학교 공사 관계로 여름방학이 길었음.

9월 중순에 개학하여 2월 초에 2학기가 끝나는 학사일정이 운영됨. 징검다리 교육과정 신청 기간을 놓침. 뒤늦게 신청함. 다만, 계획 수립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사일정의 특수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함.

3) 인원수 확정: 2022학년도 다문화 신입생(50명)을 기반으로 최대 60명에서 최소 40명의 신입생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 정해진 징검다리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자체 예산 5백만 원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 이미 예산 확보와 운영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예상보다 적은 인원수의 학생이 입학하게 되었으나 조금 더 세심한 지도를 위해 계획한 대로 진행하게 됨.

4) 목적: 2023학년도 연수중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준비교육을 실시하여 한국의 중학교 생활에 대해 이해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함. 초등학교와 달리,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규칙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5) 방침: 2023학년도 연수중학교 신입생들에게 제공되는 입학안내서를 바탕으로 입학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사전에 교육하도록 함. 학부모 교육이 꼭 필요하므로, 부모님들의 시간을 고려하여, 학부모 교육은 주말에 진행하고자 함. 세계시민교육부 주관으로 징검다리 과정을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각 부서와 협력하여 운영하도록 함.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문화 언어 강사 및 한국어 강사와 함께 운영하도록 함.

6) 교재 제작 과정: 기존 징검다리 교육과정 교재의 경우, 연수중학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았음. 이에 계획한 징검다리 교육과정의 목적과 방침에 부합한 징검다리 교재를 제작하기로 함. 12월 말까지 신입생 자료 제작 및 징검다리 교재 내용 제작 완료. (교감 선생님, 교무부 및 신입생 자료 제작과 관련된 부서의 도움을 받았음) 연수중학교 신입생 입학 안내 자료를 기반으로 기존 징검다리 교재, 다문화 학부모를 위한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다문화 디딤돌 교재, 학교폭력 예방안내 자료,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제작한 교실 한국어 자료 등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교재를 제작. 이를 학교 내에 근무하는 다문화 언어 강사 및 다문화 통번역 학습보조원을 통해 러시아어로 번역함.

<p style="text-align: center;">< 징검다리 자체제작 교재 표지 ></p> <p>연수중학교 징검다리 교육과정 자체제작 교재인 '어서 와! 한국의 중학교는 처음이지?' 교재 표지</p>	<p style="text-align: center;">< 교재 목차 ></p> <p>징검다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이외에도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음</p>

--	--	--	--

< 학사 일정 >
 교재 편집과 인쇄 상의 문제로 인하여 한 눈에 한국어와 러시아어 학사일정을 보기에는 힘들게 되었음. 하지만 모든 교재 구성을 한국어/러시아어 순으로 배치하였음.

< 자유학기제 안내 >
 중학교에 입학하여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내용 중에 하나인 자유학기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음. 특히, 2023학년도 연수중학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미리 제시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신청양식에 맞추어 원하는 수업과 동아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교재를 구성함.

--	--

--	--

< 교실한국어 1 >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자료인 ‘교실한국어’를 통해 기본적인 교실 용어를 익히고 중학교에 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교재에 수록함.

< 교실한국어 2 >
 선생님과 함께 수업시간에도 해당 내용을 복습할 수 있고, 집에서 스스로 해당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수록함.

5) 통번역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에 간단한 가정통신문을 번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음. 징검다리 교재의 경우, 분량이 많아서 교육청 차원의 통번역 지원이 불가하였음. 다행히 교재 제작이 진행 중인 12월 말과 1월 중순이 학기 중인 관계로 학교에 고용된 다문화 언어강사 및 통번역 학습 보조원을 통하여 교재를 번역할 수 있었음. 다만, 정상적으로 학기가 운영되는 때에는 통번역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부서 변동 및 책임자 변동: 징검다리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시기인 2월의 경우, 책임자와 담당자가 변동되는 시기임. 특히 연수중학교의 경우 2022년과 달리, 다문화 학생 업무를 주관하는 '세계시민교육부'를 신설함.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어 학급' 업무를 담당하던 '교무부'와 새롭게 업무를 맡게 되는 부서 간의 협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2.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

1)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개요

운영기간	2023.02.06.~02.11.(6일)				
교육시간	24차시		운영장소		연수중학교
참여인원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기타	합계
	0명	0명	17명	0명	17명
교육담당	교사 2명. (추가: 한국어 강사 1명, 다문화 언어강사-러시아어 3명 // 총6명)				
타기관 연계	해당 없음				

2)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방법

- (1) 모집방법 : 신입생 예비소집일(2023.01.13.금)에 가정통신문 배부 완료.
(학생 단체채팅방 및 학부모 단체채팅방 개설 완료)
- (2) 교육내용 : 어서 와! 한국의 중학교는 처음이지?! (2023학년도 연수중학교 징검다리과정 자체 제작 교재)

(3) 차시별 교육내용

일자	차시	교육내용		비고		
2.6 (월)	1	한국의 중학교란?	한국의 학제 소개	징검다리 교재 (4-8)		
	2					
	3	내 안의 나를 보기	자기소개 및 기초 조사서 수정	징검다리 교재 (1-3)		
	4					
2.7. (화)	1	중학교에서 생활하기 1	학사일정	징검다리 교재 (9-15)		
	2		자유학기제	징검다리 교재 (16-29)		
	3		출결인정	징검다리 교재 (30-40)		
	4		OMR 카드 사용법	OMR 카드, 컴퓨터용 사인펜		
2.8. (수)	1	나의 한국어 실력은?	한국어 능력 진단 평가	한국어 진단 보정 시스템 (컴퓨터실)		
	2					
	3					
	4					
2.9. (목)	1	중학교에서 생활하기 2	학생 생활 규정	징검다리 교재 (52-57)		
	2		학교 폭력	징검다리 교재 (58-85)		
	3					
	4					
2.10. (금)	1	교실 한국어	①교실 용어	징검다리 교재 (97-102)		
	2		②학교 행사 용어	징검다리 교재 (103-108)		
	3		③학교 장소 용어	징검다리 교재 (109-111)		
	4		④ 학교 생활 용어 모음	징검다리 교재 (112-116)		
2.11. (토)	1	학부모 교육 및 학교 둘러보기	한국의 학제	학교 둘러보기	징검다리교 재	학교 둘러보기 도우미 및 보드게임
	2		학생 생활 규정			
	3		출결 인정			
	4		학교 폭력			

(4) 예산 집행 결과

항목		세부 내용	금액(원)
인건비	강사료	강사료 30,000X24시간X2명=1,440,000	1,440,000
운영비	교재 및 교구 구입	교구 및 준비물 500,000X1회=500,000	500,000
	간식비	간식 3000X20명X1회=60,000	60,000
계			2,000,000
자체예산		5,000,000	총 7,000,000

※ 4인 강사료, 추가 간식, 학부모 협의회 및 학생 식사비, 제본비 등은 학교 자체 예산에서 추가 지출됨

(5) 운영 모습

	
<p>〈 징검다리 자체제작 교재 표지 〉 입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징검다리 과정에 따라 자체 교재를 제작함. 모든 내용을 통번역 인력을 통하여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제작함.</p>	<p>〈 자기소개 〉 징검다리 교재에 소개된 다양한 한국어를 활용 통해 자기소개 시간을 가짐.</p>
	
<p>〈 중학교 생활 안내 〉 학사일정, 자유학기제, 출결안내, OMR카드 사용법 등을 안내함. OMR카드를 실제로 작성하는 활동도 실시함.</p>	<p>〈 자기소개 및 징검다리 활동 내용 전시 〉 자기소개 및 징검다리 활동 내용을 교실에 전시하여 친구들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을 말할 수 있었음. 학부모 교육 때 오신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의 활동 내용을 관찰함.</p>
	
<p>〈 교실한국어 이해하기 활동 〉 교실, 학교행사, 학교장소 용어를 이해하고 서로 친해지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보드게임을 함께함.</p>	<p>〈 학교 서류이해하기 활동 〉 학급 관련 서류 이해하기 활동 실시. 자유학기제 수업을 이해하고 원하는 활동을 미리 신청해 보기 활동</p>
	
<p>〈 학교 시설 둘러보기 〉 한국어 학급 선배들이 도우미로 활약하여, 친구들에게 학교 곳곳을 안내함. 중학교 생활에 대해 궁금한 점도 함께 나눠보고 선배들과 함께 학교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p>	<p>〈 학부모 교육 〉 징검다리 교재를 바탕으로 학부모님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학교 제도에 대해 안내함. 학교 출결에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을 교육함.</p>

3.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결과

1)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징검다리과정에 대해 학생·학부모 만족도가 높았고 특히 담임 선생님들의 경우, 외국인 학생에 대한 사전 정보를 받은 후에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또한 사전에 학부모 교육을 통해, 출결 인정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한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징검다리과정 만족도 조사 평균	학생	학부모	담당 교원	전체 평균
	73.41	89.2	100	87.5

2) 연수중학교 징검다리 운영과정의 좋았던 점

- (1) 2022년의 다소 특이한 학사일정이 오히려 징검다리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데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음.(징검다리 교재 제작, 가정통신문 작성, 징검다리 교육과정 홍보 등)
- (2) 2023학년도 입학생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징검다리 교재를 자체 제작함. 입학생 안내자료와 징검다리 교재를 연계하여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
- (3) 기존에 문제로 제시되었던 외국인 학생들의 출결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남.

3) 연수중학교 징검다리 운영과정의 아쉬웠던 점

- (1) 2022년과 달리, 앞으로는 학교가 겨울방학 중인 경우, 징검다리 교육과정 홍보나 여러 가지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연수중학교로 진학하는 인근 초등학교와의 연계가 없었음. 다음에는 인근 초등학교와 협력하여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2) 교육부에서 배정받은 예산이 부족하여, 본교 예산을 5백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함.
- (3) 본교의 경우, 3월이 지나고 계속해서 취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었음. 학기 중에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음.

1. 징검다리 교육과정의 좋은 점

- 1) 한국의 중학교가 낯설 수 있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중학교를 소개하고 친근하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2)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많지 않은 프로그램 중 하나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귀중한 프로그램임.
- 3) 2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바쁜 3월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학생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의한 프로그램임.

2. 징검다리 교육과정의 아쉬운 점

- 1) 신청 시기: 신청 시기가 신입생을 배정받기 전이라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어려움이 뒤따름. 신청 시기를 다소 조절할 필요가 있음.
- 2) 예산 부족: 아무리 적은 인원이어도 2백여만 원의 예산으로는 징검다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특히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 중학교 징검다리 교육과정의 경우, 운영 차시에 비해 예산이 매우 부족함. 예산을 교육과정 참여 학생 인원수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음.
- 3) 교재: 기존 교재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기에 매우 훌륭한 교재지만, 개별 학교의 특성을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중도 입국 학생이나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들에게 교재 내용이 매우 어려운 편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징검다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자체 교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 4) 운영 시기: 앞서 살펴보았듯이 징검다리 교육과정 운영 시기가 '입학 전(1~2월) 및 2학기 시작 전(7~8월)'으로 정해져 있음. 외국 학교의 학제를 고려하였을 때, 9월 이후에 취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징검다리 교육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또한

학기 중에 계속해서 취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비도 힘들. 운영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지원이 필요함.

3.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 1) 징검다리 교육과정: 중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중학교 적응력 강화 교육과정으로 개념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함. ‘징검다리 교육과정’이란 이름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고려한 교육들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 진로진학: 한국 학생들 보다, 학습 동기가 현저히 낮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과정임. 특히, 중학교 시기는 고등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진로진학이 달라지는 출발선에 있는 시기임. 이러한 교육은 현재처럼 2주 이내에 운영되는 ‘징검다리 교육과정’에서 소화하기는 어려움. 또한 한국어 학급에서도 이를 다루기 힘든 부분이 있음. 결국 별도의 사업 신청을 통해,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데, 개별학교로서는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별학교의 접근이 어렵지 않도록 해야 함.
- 3) 심리상담: 다문화 학생들의 경우, 특히 중도 입국 학생 및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들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 이주하게 된 경우가 많으며, 사춘기와 맞물리면서 심리적으로 우울과 불안함을 보이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꾸준히 제시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4) 부모교육 및 상담: 다문화 학생 중,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 부모교육과 상담이 절실함. 외국인 학부모들은 한국의 학제나 중학교 전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에 대한 교육이 요구되며,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의 경우,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가족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5) 학습도구 한국어 및 교과학습 한국어 과정 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학급’ 프로그램의 경우, ‘의사소통 한국어’ 위주의 수업임. 학습도구 한국어 교재가 있긴 하지만, 실제 한국어 학급 프로그램에 적용되기는 어려움.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있어 한국 사회 적응 및 진로 진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이 학습도구 한국어 및 교과학습 한국어임. 이에 대한 별도의 교재와 프로그램이 요구됨.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 정종운(구로구가족센터 센터장)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 지원사례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2023. 08. 24

정종운(구로구가족센터)

목차

- 실시배경 및 진행과정
- 사업목표와 운영절차
- 사업대상과 현황
- 사업성과와 한계, 과제

사업개요

- 사업명: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2020년~ 현재)
- 사업대상: 중도입국 2년 내·외 초등학생과 부모
- 진행인력: 구로구 내 아동교육과 부모상담 경험이 있는 활동가
- 사업내용: 중도입국 아동 한국어 교육
이주민부모 상담
- 진행방법: 주 2회, 1회 2시간 가정방문
- 진행기간: 의뢰시점~ 12월

실시배경

1) 구로구 특성 - 이주민과 이주민 자녀 밀집

구분	구로구 초등학생 총계	구로구 다문화초등학생			
		소계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2018년	18,820명	1,975명	1,295명	147명	533명
2019년	18,674명	2,304명 (12.3%)	1,463명 (63.54%)	112명 (4.86%)	729명 (31.6%)

출처: 2019년 서울시교육통계연보

* 구로남초, 영일초, 동구로초, 구로초 등 다문화밀집학교 - 구로 을지역에 위치

실시배경

- 중도입국 아동은 언어, 학습, 친구, 환경 등 급격한 변화에 부적응
- 학교에서 학습수준, 또래관계와 직결되어 편견과 분리의 원인으로 작용
- 이주민 부모는 안정적인 체류자격과 경제적 기반 마련이 우선
- 장시간 근로나 장거리 통근으로 가사 및 자녀양육은 순위에서 밀림
- 한국어와 기초학습 능력, 정서적 안정이 적응에 중요
- 아동상담과 사례관리 의뢰 증가

실시배경

2) 학습의 시기성

“시간은 공평하다. 친구도 없고 언어도 다르고 예측 불가능한 낯선 세상에 발을 딛고 새로 시작하는 청소년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학교에 들어와서 미처 알지 못하는 학교문화와 수업으로 긴장했고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도전할 수 없어서 낙심했고 자신의 기량만큼 인정받지 못해서 우울했다. 한국어 배워가면서 수업을 따라갈 거라 여겼는데 쉽지 않았다. 적응하면서 중학교를 마치고 싶었는데 시간은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고등학교는 두 손 불끈 쥐고 가야 하는 거친 오르막이다. 미처 오르지도 못했는데 하산할 시간이 되고 만다.”

출처: 세계일보 다문화칼럼, 이주민도 청소년 담게, 정중운(2023.5.25)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이주민도 청소년담게

본문 | 2023년 5월 25일 14:00



실시배경

3) 가족센터 운영방향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은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조로 가능
- 2017년 이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가족 대상 교육사업 운영
- 아동·청소년 교육서비스 지속했으나 부모교육, 가족상담 부모 참여 저조
- 부모와 접촉과 교육 유지하면서 부모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필요

실시배경

4) 지역사회 기반의 외국사례 적용

- 프로미스 네이버후드(Promise Neighborhood)
- 뉴욕 할렘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교육력 제고를 목표로 한 '할렘의 어린이존'
(Harlem Children's Zone, HCZ) 모델, 전국적으로 확대. 지역마다 다양한 모델로 성장
- 부모를 지원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성취도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
-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학교와 아동의 변화, 성취도 공유
- Northside Achievement Zone의 경우 NAZ 커넥터가 관계망 구축의 핵심. 성공요인이 됨
 - 커넥터는 이주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잇는 연계자 역할을 수행
 - 가족들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부모교육,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 제공
 -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멘토링 등 지역사회 교육정보 안내 및 연계

프라미스 네이버후드 사업 교육적 성과와 지표	
1. 입학 후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유치원에 입학한다	1. 신생아~유아원에 재학하는 인구 가운데 아프거나 건강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 찾아갈 곳이 있는 인구수와 비율 2. 만 3세~유아원에 재학 중인 인구 가운데 학기 초에 자기 나이에 맞는 인지수준을 갖추고 있는 인구수와 비율 3. 출생~유아원 재학하는 인구 가운데 초기 헤드스타트, 헤드스타트, 탁아, 유치원을 포함한 센터 기반 혹은 공식적인 프로그램을 받아본 인구수 및 비율
2. 학생들은 필수 교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다.	4. 주 단위 수학, 읽기, 언어평가 기준의 수준에 달하거나 그 이상의 점수를 받는 학생의 수 및 비율
3. 학생들은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5. 6, 7, 8, 9학년 학생의 출석률
4.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6. 졸업률
5.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중등과정 이후의 학위 혹은 이에 준하는 직위를 받는다.	7. 프라미스 네이버후드 프로그램 수혜학생 가운데 고등학교 학위를 받고 중등과정 이후의 학위, 직업 관련 자격증 혹은 산업체 자격증 혹은 이에 준하는 직위를 갖춘 학생 수 및 비율

프라미스 네이버후드 사업 가족 및 지역사회지지 성과 및 지표	
6. 학생들은 학교와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	8. 하루에 60분 이상 적당량의 운동 활동을 하는 학생 수 및 비율 9. 하루에 5번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학생 수 및 비율
7. 학생들은 학교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공동체)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10. 등굣길에 그리고 학교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학생 수와 비율(학교환경 욕구 평가로 측정)
8. 학생들은 안정적인 지역사회에 거주한다.	11. 전학률
9.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프라미스 네이버후드 학교에서의 교육을 지원한다.	12. 출생~유치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부모가운데 일주일에 3번 이상 책을 읽어준 부모의 수와 비율 13. 유치원~8학년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학교 밖에서 책을 읽도록 권장했다고 보고한 부모의 수와 비율 14. 9학년~12학년인 자녀를 둔 부모 가운데 자녀와 대학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 했다고 보고한 부모의 수와 비율
10. 학생들은 21세기형 학습을 위한 도구들에 대한 접근성을 갖고 있다.	15. 집과 학교에서 광대역 인터넷 및 컴퓨터에 대한 접속이 가능한 학생 수와 비율

출처: 다문화학생 밀집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 2017, 교육부

구로형 프로미스 네이버후드-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과정

- 2019년 구로다문화청소년 실무자 모임에서 PN모델 학습, 이주민부모 간담회 진행
- 2020년 구로형 PN모델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한 이주민 선배가 커넥터 역할
- 2021년~ 2023년 아동교육과 지역활동 경험이 있는 선주민이 커넥터 선정
커넥터 역할 및 성과지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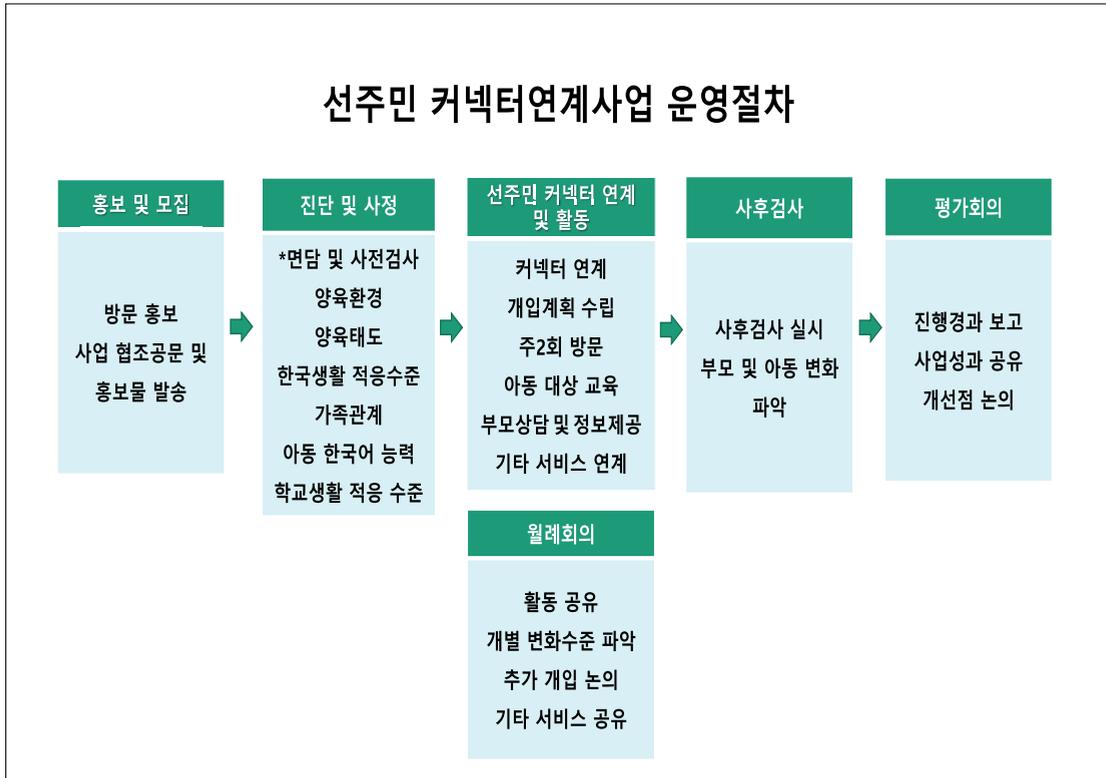
대상	커넥터 역할	센터 역할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심리정서지원, 학교생활 지도 • 아동의 학교 적응상황, 학업 성취도, 생활태도를 토대로 부모에게 지원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넥터 모집,양성 • 아동가정 선정, 욕구사정 • 개입목표와 방법 협의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및 양육상담 • 한국의 교육제도, 교육정보, 기타 생활정보 안내 • 부모 대상 한국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와 성과 관리 • 가족단위 서비스 제공

선주민 커넥터연계사업 목표

아동성과목표	부모성과목표
학교생활 만족도 향상	부모-자녀관계 향상
한국어 능력 향상	자녀 교육 관여도 향상
교우관계 향상	부모역할 수행능력 향상
부모-자녀관계 향상	

※ 커넥터 사업 참여 전·후 성과측정을 위한 검사 실시

선주민 커넥터연계사업 운영절차



선주민 커넥터연계사업 대상

- 1) 아동: 입국 2년 이하 초등학생, 학년 관계 없음
(2023년 저학년 8명, 고학년 7명)
외국인 가정,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학생 모두 해당
- 2) 부모: 국적과 언어 관계 없음
주1회 이상 커넥터와 상담 가능한 부모

선주민 커넥터연계사업 현황

년도	커넥터	연계 가정 (아동 인원)	1인 평균 회기	연계학교	출신국	재원
2020년	2명	6가정	15	음릉학교	중국, 베트남	센터 자체 진행
2021년	8명	11가정	38	관내 6개 초등학교	중국, 일본	초록우산 공모
2022년	9명	12가정 (아동 14명)	52	관내 5개 초등학교	중국, 일본	구로구청 지원
2023년	9명	14가정 (아동 15명)	28(7.30기준)	관내 5개 초등학교	중국, 베트남, 미 안마	구로구청(외부)

- 2020년 커넥터의 문화적 민감성에 초점을 두어 한국에서 자녀교육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 성인을 커넥터로 선정하여 부모상담과 정보제공을 진행함
- 한국에서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자국민 선배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으나 자녀교육 욕구가 우선
- 2021년 자녀 한국어교육이 가능한 지역주민을 커넥터로 선정하고 아동교육과 부모상담 병행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아동 성과지표 문항

1	나는 학교생활이 즐겁다.
2	나는 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좋아한다. 좋아한다
3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4	나는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른다.
5	숙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교박교박 해가는 편이다.
6	나는 학교에 지각이나 무단 결석을 한 적이 있다.*
7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모두 이해한다.
8	나는 한국어 책을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다.
9	나는 친구들, 선생님과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
10	나는 한국어로 이야기 하는 것이 편하다.
11	나는 한국에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갈 수 있다.
12	나는 한국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
13	나는 다른 학생들과 싸우거나 다툰 적이 있다.*
14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기댈 수 있다.
15	나는 방과 후에 친구들과 자주 시간을 보낸다.
16	나는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친구가 있다.
17	나는 부모님께 나의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의논한다.
18	나는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눈다.
19	부모님은 항상 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잘 들어 주신다.
20	나는 부모님을 사랑한다.

- 박현선(1998)의 학교 적응유연성, 정선욱(2002)의 또래 애착, 한국아동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중 또래 및 대인 관계, 부모-자녀 관계 척도 참고.

- 위의 척도에서 중도입국 아동의 학교 적응유연성(1~6문항), 한국어능력(7~12문항), 또래 관계(13~16문항), 부모자녀 관계(17~20문항) 재구성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부모성과지표 문항	
1	나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한다.
2	나는 자녀에게 애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3	나는 자녀의 정래교육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4	나는 자녀에게 올바른 언어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한다.
5	전시회, 여행 등 자녀와 함께 하는 다양한 경험을 한다.
6	나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즐겁다.
7	자녀는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한다.
8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자 노력한다.
9	자녀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10	나는 자녀의 강점과 취약점을 잘 알고 있다.
11	나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하거나 조언을 해준다.
12	아이의 학교 소식을 잘 읽고 학교 일정과 상황을 이해한다
13	자녀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14	자녀가 학교에서 가져오는 가정통신문을 관심 있게 본다.
15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학교 선생님과 상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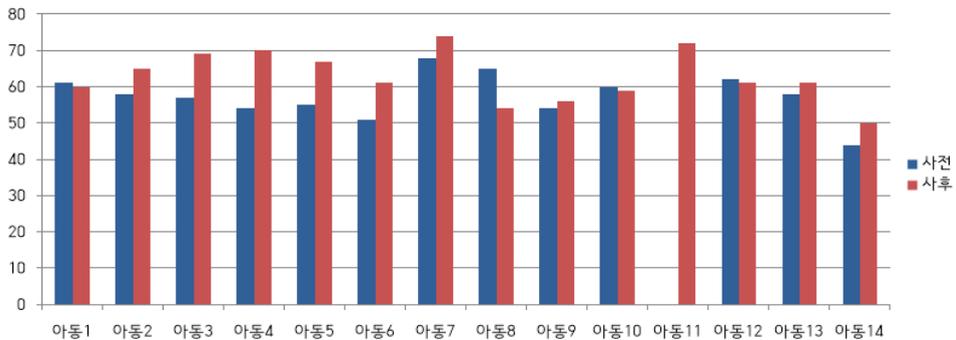
1. 한국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중 부모-자녀 관계 척도 참고

2. 김정화(2004). 부모의 교육 참여와 자녀의 영재성과의 관계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중 부모의 교육참여 척도 참고

부모-자녀 관계(1~7문항), 부모님의 자녀 학교 생활지도(8~15문항)로 재구성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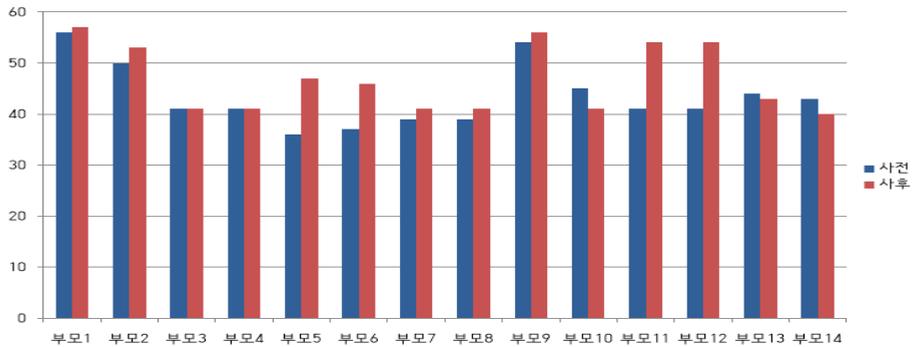
■ 아동 사전사후 점수



사전점수 평균 53.36점, 사후검사 평균 62.79점으로 사전대비 사후점수 9점 이상 상승
가장 많이 향상된 항목은 한국어, 다음은 학교생활 만족도임.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성과

■ 부모 사전사후 점수



➡ 사전점수 평균 43.36점, 사후검사 평균 46.79점으로 사전대비 사후점수 3점 이상 상승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결과 예시

2022년 12월 평가

아동명	학교	학년	입국 연도	연계 시기	대상	사전 점수	사후 점수	향상영역	부모 보고 및 담당자 평가
박00	동구로초	5	2021.07	2022.05	아동	61	60	한국어 3 교우관계 2	하루 한 시간씩 가족끼리 한국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짐. 한국어도 늘었지만 매주 친한 친구들과 청소년센터를 방문할 정도로 교우관계 좋아지고 지역기관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게 됨
					부모	56	57	부모자녀관계 1	
김00	동구로초	4	2019.03	2021.04	아동	58	65	한국어 5 교우관계 1 부모자녀관계 1	한국어 자신감이 많이 생김.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도 잡힘. 한국에 와서 많이 움츠러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에서 생활할 때처럼 쾌활한 성격을 되찾음.
					부모	50	53	부모자녀관계 1 자녀교육 2	
김00	개봉초	2	2021.05	2021.05	아동	57	69	학교생활 3 학교규칙 2 한국어 4 교우관계 3	학교 생활 긍정적으로 변화. 피아노,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다니며 교우관계도 원만해짐. 한국어 능력 향상되어 현재는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다고 함. 어머니는 일본어를 모두 잊어버릴까 걱정하고 있음.
					부모	41	41	변화없음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성과

2022년 12월 평가

1) 아동

- 한국어 능력 향상
- 기초적인 예절과 생활습관 형성
-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 향상
- 한국인 친구와 교우관계 형성
- 폭력, 욕설 등 부정적 행동 빈도 수 감소
- 한국생활에 대한 만족도 증가
- 지역 내 아동청소년 복지기관 이용률 증가
- 저학년 8명, 고학년 7명 - 중학교 적응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성과

2022년 12월 평가

2) 부모

-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 대화 횟수 및 시간 증가
-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위해 재정적 지원
- 학교 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
- 교육정보 수집 및 이용률 증가
- 공공기관(도서관, 보건소), 생활시설 등 접근성 증진
- 자녀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에 관심 증가, 관련 서비스 이용
- 지역사회 소속감 형성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성과

2022년 12월 평가

3) 커넥터

- 이주민 가정의 현실과 양육상황 이해
- 중도입국 아동의 수준과 정서상태에 맞는 교육방법 개발
-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선주민의 자세 정립
- ‘국적보다 사람, 성인보다 아이’라는 인식의 고양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성과

커넥터 선정과정에서 질문을 받았다.

“부모들은 한국말을 하나?” 외국국적동포라면 말은 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물론 서비스를 받다가 돌아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 사는 동안 학교와 지역 사회에만 아이를 맡기지 말고 자기가 길러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구로에서 살고 있는데 구로구 주민 누구 한 사람 답답할 때 알고 지내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했다. 그래서 선주민과 이주민을 연결하는 커넥터라고 설명했다.



엄마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데 센터에서는 지원해줄 게 없냐? 아이가 부모 떨어져 중국에 있다 와서 불안감이 심하고 산만한데 치료프로그램 없냐?
아이 공부 끝나면 엄마도 30분 쯤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부족하다. 센터에서 배울 건 없냐?
엄마가 한국에 아는 사람 없고 우울해해서 남산도 같이 가고 시장도 같이 가니 좋아하더라 어디 나들이 프로그램은 없냐?

세계일보 다문화칼럼, 접촉의 마력, 정종윤(2022.7.13)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성과

2022년 12월 평가

4) 기관

- 선주민 커넥터 발굴과 성장
- 중도입국아동과 가족의 적응과 변화
- 선주민과 이주민의 접촉과 통합

선주민 커넥터 연계 사업의 한계와 과제

1) 한계: 자원과 인력의 한계

- 구로형 네이버후드 사업으로 발전하기엔 전달체계 없어 동력이 떨어짐
- 매년 외부공모에 의지. 사업을 확장하거나 심화 시키기 어려움
-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어 의존적이거나 무관심한 부모는 배제하게 됨

2) 과제: 교육과 양육의 주체가 가정이 되도록 역량강화

-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학교단위로 매듭. 부모가 주체가 되어야 상급 학교 적응 유지
- 중도입국 초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의 구조화와 공식화
- 장기정착으로 정주화하고 있는 외국인가정이 지역사회 통합

제51회 청소년정책포럼
2023년 다문화 청소년 포럼

종합토론 및 전체토론

「징검다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토론

토론자: 한경은(군서미래국제학교 교감)

1. 들어가며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양상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이번 포럼은 현장 학교의 입장 또는 다문화교육을 실천하는 입장으로는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이고 행사이다. 다문화학생이 급증하기 시작한 수년 전부터 학교, 교육청, 정부 부처 또는 사회에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은 하였지만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그 해결책 중 하나인 공교육 진입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나온 여러 정책 중 ‘학교생활의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부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에 징검다리 과정이 도입되어 2023년 현재 전국 56개의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본 토론문에서는 징검다리 과정 운영교 중 하나인 연수중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징검다리 과정의 효율성을 현장 학교의 입장에서 모색하고,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2. 펼치며

가. 학교의 고민은 무엇이였을까?

연수중학교는 발표 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인 4세 등 러시아어권 국가 학생이 다수인 다문화학생 비율이 30% 정도인 18학급 규모의 중학교이다. 2019년도에 10% 정도의 다문화학생 비율이 매년 급증하면서 학급마다 10명 내외의 다문화 학생들이 재학하게 되면서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고, 세계 공용언어인 영어도 사용

하기 어려운 국가의 학생들이 많이 재학하면서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교육의 시급성이 제고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단지 연수중학교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전국 각지의 많은 학교에서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어려움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여 연수중학교에서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았고 그 중 징검다리 과정이 새롭게 연수중학교에 진학하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면 학교가 그 후로 고민한 부분은 무엇이였을까? 먼저 계획서를 작성하여 징검다리 과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과 운용인력, 교육의 내용과 시기를 고민하게 된다. 연수중학교는 교육 기관과 교육자의 사명감과 책무성으로 정규 교육 과정에서 편성되지 않는 별도의 징검다리 과정을 신청했지만, 신입생 배정 전에 계획을 해야 하는데서 오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 인원과, 내실있는 과정을 운용하기에 매우 부족한 예산, 학교별로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재의 부존재, 인사이동과 신학기 준비기간과 중복되는 운영 기간에 따른 운용인력의 확보 등 아주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나.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나갔을까?

위에서 언급한 고민거리를 한가득 안고 연수중학교는 실행을 하나씩 하게 된다. 먼저 수요예측이 불가능한 연도별 평균 학생 수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고(결과적으로는 많이 적은 수가 참여했지만), 예산은 학교의 기본운영비와 특수목적사업비로 오는 예산 중 목적이 비슷한 사업의 예산을 빌려 쓰게 된다, 학교에 진입하는 다문화 학생의 이주 배경 특성과 학교 주변 지역의 특징, 학교의 현실 및 기존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알게 된 필수 교육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자체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새로운 조직부서 개편과 인사이동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징검다리 과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 및 선생님들께 협조를 부탁하여 해결해 나간다.

다.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나?

발표문 만족도 조사에서 보듯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매우 만족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학교 차원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간 연수중학교 담당 선생님, 담당 부서, 교직원들의 노력이 만든 성과라 생각된다. 특히 결과에서 언급한 담임 선생님들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후에 학생들을 만나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 부분과, 학부모 교육을 통해 출결 관련 사항 등을 안내해 다문화 학생들의 출결 관리 부분에 교육의 효과를 보았다는 부분은 시사하는 점이 매우 많다.

라. 그러면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첫째, 예산 관련하여 현실에 맞는 증액이 필요하다. 예산의 사용은 강사료와 교재교구 구입비 뿐만 아니라 원활한 과정 운영을 위하여 추가로 지원되는 강사수당, 번역, 교재작성 및 제본, 협의회비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교육의 질과도 상관된다. 발표문에서 제안한 학생 수와 기간에 따른 예산의 단계별 차등 지원도 증액의 기본 방향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전국 징검다리 과정 운영교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교재의 제공이 필요하다. 물론 이주 배경의 특성과 학교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각 단위 학교에서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일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공통교재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학교생활, 학사 시스템 및 자유학기제 등 교육과정, 출결 규정 등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어 제공된다면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징검다리 과정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및 관계 기관 대상의 홍보와 함께 학생 모집 기간을 앞두고 초등과정에 대해서는 유치원 대상으로, 중등 과정에 대하여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필요성을 가지는 수요자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징검다리 과정 운영교 네트워크 구축과 사례 발표 및 공유를 통해 운영의 내실화

와 정책 효과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새롭게 진행되는 정책 사업은 특히 시행 초기에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이에 각 학교의 다양한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며 담당 부서에서는 발전적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 보완해 가고, 학교에서는 교육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운영의 방안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다.

3. 나가며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이주 배경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이는 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측면이 상이하며 더 세분화된 다문화 교육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이미 일부 시도에서는 징검다리 과정과 비슷한 정책을 상시적,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입학 전 사전교육을 위한 집중형 한국어학급(특별학급)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교육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위탁형 다문화대안교육 기관을 통해서 징검다리 과정과 비슷한 목적을 달성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현장의 다양한 시도를 중앙부처에서 잘 파악하고 지원하고 관리하여 새로운 정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 다문화 학생은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에 한정된 현재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취업 지원 및 교육 및 훈련까지 확장의 필요성을 고민해 볼 시기이다. 이는 다문화 학생이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으로 4차 산업 사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통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회적 의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오늘 바라본 징검다리 과정 정책과 연수중 학교의 고민과 노력도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대비하는 소중한 정책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 글을 마친다.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에 대한 토론

토론자: 김수영((사)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1. 외국인 주민 현황(서울 남부 3구를 중심으로)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¹⁾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2011.11.1. 기준)는 213만 4,569명이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64만 9,967명(77.3%),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21만 880명(9.9%), 이밖에 외국인 주민 자녀(출생)은 27만 3,722명(12.8%)이다. 지난해(2020년) 대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4만 5,676명(2.7%↓) 감소한 반면,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1만 1,752명(5.9%↑) 증가, 외국인주민 자녀는 1만 2,076명(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경우 미취학아동 110,720명(40.4%), 초등학생 102,973명(37.6%), 중고생 60,029명(21.9%)이다.

[표 1]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2)

(단위 : 명)

구분	외국인주민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출생)
	계	남	여	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21년	2,134,569	1,090,073	1,044,496	1,649,967	395,175	174,632	156,607	368,581	554,972	210,880	273,722
		(51.1%)	(48.9%)	(77.3%)	(18.5%)	(8.2%)	(7.3%)	(17.3%)	(26.0%)	(9.9%)	(12.8%)
'20년	2,156,417	1,117,399	1,039,018	1,695,643	455,287	173,756	142,569	345,110	578,921	199,128	261,646
		(51.8%)	(48.2%)	(78.7%)	(21.1%)	(8.1%)	(6.6%)	(16.0%)	(26.8%)	(9.2%)	(12.1%)
증감	△21,848	△27,326	5,478	△45,676	△60,112	876	14,038	23,471	△23,949	11,752	12,076
	(△1.0%)	(△2.4%)	(0.5%)	(△2.7%)	(△13.2%)	(0.5%)	(9.8%)	(6.8%)	(△4.1%)	(5.9%)	(4.6%)

1) 행정안전부, 2022.10

2)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2. 1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적 현황과 더불어 구로구를 비롯한 서울 남부 3구의 외국인주민 수를 살펴보면, 구로구 42만 6,220명(12.3%), 영등포구 40만 2,984명(12.7%), 금천구 24만 7,398명(12.5%)으로 나타났다. 서울 남부 3구의 이주민 비율은 평균 12%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지역 모두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5% 이상 되는 시·군·구 57개 중 6위³⁾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다. 더불어 이들 지역은 전년(2020년)대비 외국인주민 500명 이상 감소 18개 시·군·구 중 상위 1~3위⁴⁾에 해당 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외국인주민이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의 원인(집값 상승, 코로나, 인근 도시로의 편입 등)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여전히 외국인 주민이 많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도시라는 것에 집중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표 2] 서울 남부 3구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5)

(단위 : 명)

구분	총인구	비율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않은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자녀 (출생)
전국	51,738,071	4.1%	2,134,569	1,649,967	210,880	273,722
서울	9,472,127	4.5%	426,743	347,080	44,768	34,895
구로구	426,220	12.3%	52,433	42,886	7,142	2,405
금천구	247,398	12.5%	30,878	25,207	4,151	1,520
영등포구	402,984	12.7%	50,999	43,342	5,874	1,783

[표 3]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2021 서울교육통계연보를 재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 전체 다문화 학생(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자녀,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수는 2만 6,772명이다. 이중 구로구에는 3,555명(13%)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 남부 3구에 속하는 구로, 금천, 영등포의 다문화학생수치를 합하면 8,501명 으로 서울지역 내 다문화학생인구의 31.7% 가 다니고 있다. 생활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역이기에 서울 남부 3구의 다문화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또 더 많이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영등포구 3위, 금천구 5위, 구로구 6위

4) 영등포구 3,589명(6.6% 감소), 구로구 2,499명(4.5% 감소), 금천구 1,782명(5.5% 감소)

5)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022. 10

[표 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중도입국자녀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국내출생 자녀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에 안겨준 숙제는 이미 많기에 이들의 수치가 그리 낮다고 볼 수만은 없다. 더불어 초등학교의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의 비율이 높은 것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을 높여내기 위한 프로그램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본 발표자는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지원사례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 관련한 내용을 토론하고자 한다.

[표 3] 서울 남부 3구 다문화학생 현황 6)

(단위 : 명)

구분	총계	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자녀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서울	26,772	13,093	4,049	2,053	812	543	276	4,161	1,210	575
구로구	3,555	1,477	503	228	68	54	36	800	293	96
금천구	2,083	972	228	100	30	31	10	569	102	41
영등포구	2,863	1,188	369	97	62	33	13	797	256	48

2. Promise Neighborhoods - 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에서의 주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Promise Neighborhood 사업의 목표는 1. 대상자 발굴 및 역량강화, 2. 진로까지 완벽한 솔루션 구축, 3. 기관간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통합, 4. 지역사회내 인프라 개발, 5. 구체적 평가를 통한 전략 평가 라고 정리될 수 있다. 구로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로형 Promise Neighborhood-선주민 커넥터 연계사업의 목표는 주요하게 아동성과와 부모성과에만 맞춰져 있다. 주요 참여자들의 향상이 매우

6) 서울시교육청, 2021 서울교육통계연보 재정리

핵심적인 목표일 수 있으나 결국 지역사회의 선주민과 이주한 아동·청소년 전체의 성장이 중요한 목표가 되므로 선주민의 성장과 대상자의 성장 모두를 끌어낼 수 있는 목표가 중요하다. 더불어 지역사회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수립되어 모범적 연계사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3. 선주민 커넥터의 선발, 교육, 성장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내는가?

발표자의 사업개요에 진행인력은 ‘구로구 내 아동교육과 부모상담 경험이 있는 활동가’이며, 이들이 주 2회, 1회 2시간 가정방문을 통해 중도입국 아동 한국어교육과 이주민 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초기에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한 이주민 선배가 커넥터 역할을 했고, 지금은 아동교육과 지역활동 경험이 있는 선주민 커넥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커넥터는 단순한 멘토가 아닌 지역사회로의 안정적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연결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들이다. 이들을 선발, 교육, 성장시켜내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절차나 내용이 궁금하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다. 커넥터들이 선한 마음으로 이주자 및 그들의 자녀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활동에 나섰겠지만 이들의 지속적 관리와 교육 그리고 성장이 없다면 커넥터들도 목표한 데로 역할을 다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커넥터들의 성장과 발전에도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있기를 바란다.

4.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이 있었는가?

초-중 전환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사춘기로 접어드는 시기이다. 사춘기시기 정서와 신체의 폭발적 변화가 이루어지기에 부모의 역할, 학교의 역할, 지역사회의 역할, 또래집단의 역할 등이 매우 중요한시기이다. 특히 이주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문화적 충돌, 부모 및 타 가족원과의 불화, 이주배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들로 인해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할 수 있다. 더불어 이 시기는 진로에 대한 고민 역시 시작되는 때라 할 수 있다. 구로형 커넥터 연결사업이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이라 그 성과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초-중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나 진로 고민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